

페루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4
외교관계 / 6
주한주재 국기관 / 11
한국과의 주요이슈 / 12

II. 경제

경제정책 / 13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6
주요 산업 동향 / 18
정보조사 자료원 / 25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28
무역통계 / 28
투자통계 / 32

IV. 출장가이드

기후 /	37
시차.근무시간 /	38
도량형 /	39
출입국.비자 /	39
환율.환전 /	41
물가정보 /	42
교통.통신 /	44
호텔.식당 /	47
관공서 관행 /	50
공휴일 /	51
여행시 유의사항 /	51
유용한 연락처 /	54
관광명소 /	56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57
수입규제제도 /	58
관세제도 /	59
주요인증제도 /	64
지적재산권 /	64
소비자보호제도 /	65
교역관련 국가기관 /	65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66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9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9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70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71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72
운송 /	73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74
유형별 분쟁사례 /	76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76

우리기업 투자동향 / 79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80

투자인센티브 / 83

타당성조사 / 83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84

입지선정 / 87

공장 설립 / 87

투자관련 정부기관 / 8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90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90

조세제도 / 93

외환관리 / 95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96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페루 (영문명 : Republic of Peru), (현지어 국명 : Republica del Peru)
위 치	북쪽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칠레, 볼리비아 접경
면 적	1,285천km ² (산림지대 53.2%, 목초지 21.2%, 경작지 2.7%)
기 후	리마를 포함한 해안지대는 사막성 기후 안데스 산맥 이동의 산악지대는 열대성 기후
수 도	리마 (Lima, 해안과 접해있는 저지대)
인 구	총 2,722만 명 (2005년), 리마인구 약 850만 명
주요도시	Arequipa (862 천명), Trujillo (765 천명), Chiclayo (738 천명)
민족(인종)	인디오 50%, 메스티조 37%, 백인 12%, 일본 및 중국계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카톨릭교 (92.5%), 기독교 (5.5%), 기타 (2.0%)
건국(독립일)	1821. 7.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보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Alan Garcia Perez: 취임일: 2006. 7. 28 임기5년 (재임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

자료원: 페루 통계청 INEI

나. 경제지표 (2005년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6.3%
1인당 GDP	US\$ 2,925불
실업률	8.3%
물가상승률	1.49%
화폐단위	솔 (Sol)
환 율	US\$ 1 = 3.20 Sol
외 채	US\$ 28,348 백만 불
외환보유	US\$ 14,097 백만 불
주요업종별 성장률	제조업 (6.4%), 서비스업 (6.0%), 광업 (7.9%), 상업 (5.8%), 건설업 (8.1%), 농수산업 (5.8%)
교역규모	수출 US\$ 17,000 백만 불, 수입 US\$ 12,547백만 불
교역품	주종수출품목 - 광물, 수산물, 섬유류, 농수산 가공품 주종수입품목 - 중간재, 자본재

자료원: 페루 통계청 INEI, 관세청, 페루 중앙은행 등

다. 한-페루 관계 (2005년도 기준)

체결협정	통상 협정('76), 사증면제 협정 체결('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4), 문화 협정('88), 투자보장 협정('93), 남극협력 협정('96), 어업 협정('96. 9 가서명), 항공 협정 ('02. 7 가서명), 범죄인도 조약 서명 ('03. 12), 관광 협정 서명('02. 12.10) 및 발효('03. 1.29)
교역규모	531백만 불 (대페루 수출 282백만 불, 대페루 수입 249백만 불)
교역품	대페루 주종수출품목 - 자동차, 전자제품, 식물, 합성수지 등 대페루 주종수입품목 - 광산물, 농수산물
교민	교민수 약 800명 (2005년 추정)

자료원: 페루 통계청 INEI, KOTIS 등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조직

페루는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임기 5 년제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재임은 허용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제 1,2 부통령 등 2 명의 부통령을 두고 있으며, 총리도 별도로 두는 다소 특이한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 행정부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이 15 개의 정부부처를 두고 있다.

1. 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2. 대외무역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3. 국방부 (Ministerio de Defensa)
4. 교육부 (Ministerio de Educacion)
5.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6. 법무부 (Ministerio de Justicia)
7. 여성사회개발부 (Ministerio de la Mujer y Desarrollo Social)
8. 생산부 (Ministerio de la Produccion)
9. 외교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10. 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11. 교통통신부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12. 건설부 (Ministerio de Vivienda y Construcccion)
13.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14. 노동부 (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on del Empleo)
15. 재정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입법부의 경우 페루는 단원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의석은 120 석이다. 2001 년 4 월 8 일 총선결과 절대 다수당은 없었으며, 정치성향이 유사한 당간의 정책적 공조체제가 불가피 하였다.

반면, 2006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페루민족주의자결당(UPP)이 가장 큰 의석수를 확보하였으며 2위는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정당인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당(APRA)가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국민단일동맹당(UN)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별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 Union Por el Peru : 45석
- Partido Aprista Peruano : 36석
- Unidad Nacional : 17석
- Alianza por el Futuro : 13석
- Frente de Centro : 5석
- Peru Posible : 2석
- Restauracion Nacional : 2석

지역별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알파벳순)

- Amazonas : 2 석
- Ancash : 5 석
- Apurimac : 2 석
- Arequipa : 5 석
- Ayacucho : 3 석
- Cajamarca : 5 석
- Callao : 4 석
- Cusco : 5 석
- Huancavelica : 2 석
- Huanuco : 3 석
- Ica : 4 석
- Junin : 5 석
- La Libertad : 7 석
- Lambayeque : 5 석
- Lima : 35 석
- Loreto : 3 석
- Madre de Dios : 1 석
- Moquegua : 2 석
- Pasco : 2 석
- Piura : 6 석
- Puno : 5 석
- San Martin : 3 석
- Tacna : 2 석
- Tumbes : 2 석
- Ucayali : 2 석

페루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정치제도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
 -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은 페루 출생으로 35 세 이상인 자라야 함
 - 선출은 국민 직접선거로 하되 1 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는 1 차 선거 1,2 위 후보가 2 차 경선 투표에 들어가 다수 득표자가 당선됨
 - 대통령 외에 제 1, 2 부통령 제도를 두고 있음
 - 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과 임기는 대통령과 동일
 - 정부조직으로는 실무를 담당하는 15 명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와 정부 부처를 두고 있음
 - 국무총리는 각료 중 1 명이 겸임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120 석이며 임기는 5 년임
 - 선출방법은 지역구 방식이 아닌 전국구 형태인 정당/개인후보 지명 투표 방식임
 - 각 정당후보 중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득표 순에 의거 120 명을 결정
 - 국회의장단은 의장 외 3 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1 년임
 - 의장단은 대부분 전원 여당인 경우가 많음
 - 국회 회기는 1 기는 매년 7. 27-12.15 일간이며, 2 기는 3.1-6.15 일간임
 - 산회기는 각 상임위원회가 국회활동 대행
 -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된 3 심제 임
 - 대법원장 임기는 통상 5 년이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법관은 중앙 법관 추천회의에서 임명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를 위해 DEFENSOR DEL PUEBLO(국회에 의해 임명 되는 호민관) 제도가 있음.
- * 현 Defensor del Pueblo : Beatriz Merino

3. 주요인사

가. 국가원수

1) 대통령(Presidente)

- 인적 사항
 - 성명: Alan Garcia Perez
 - 생년월일: 1949년 5월 23일생(57세)
 - 출생지: 리마
- 학 력
 - 페루 카톨릭 대학교 재학

- 페루 San Marcos 대학교 법학과 졸업
- 스페인 Complutense de Madrid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프랑스 파리 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5-1990년 페루 대통령으로 재직
 - 1992-2001년 후지모리 집권 당시 프랑스로 망명
 - 2001년 페루 대통령 선거 입후보 및 낙선 (Toledo 대통령 당선)
 - 2006년 페루 대통령 당선

2) 제 1 부통령

- 인적 사항
 - 성명: Luis Giampietri Rojas
 - 생년월일: 1940년 12월 31일생(65세)
 - 출생지: 까야오
- 학 력
 - 페루 해군사관학교 졸업
- 주요 경력
 - 해군 인사참모부장
 - 해군 제독

3) 제 2 부통령

- 인적 사항
 - 성명: Lourdes Mendoza del Solar
 - 생년월일: 1958년 1월 7일생 (48세)
 - 출생지: 아레끼빠
- 주요 경력
 - 2002년 아레끼빠 부시장
 - 2006년 국회의원 당선
 - 2006년 페루의 사상 첫 여자 부통령으로 임명

4) 총 리

- 인적 사항
 - 성명: Jorge del Castillo Galvez
 - 생년월일: 1950년 7월 2일생 (56세)
 - 출생지: 리마
- 학 력
 - 페루 San Marcos 대학교 법학 및 정치학과 복수전공
 - 페루 Piura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 페루 카톨릭 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취득

- 주요 경력
 - 리마시 Barranco 구청장
 - 리마시장
 - 국회의원 (1995-2000)
 - 국회의원 (2000-2005)
 - 국회의원 (2006-2011)

5) 각 부처 장관

- 농업부 장관 : Juan Jose Salazar
- 대외무역관광부 장관 : Mercedes Araoz
- 국방부 장관 : Allan Wagner
- 교육부 장관 : Jose Chang
- 에너지광업부 장관 : Juan Valdivia
- 법무부 장관 : Maria Zavala
- 여성부 장관 : Virginia Borra
- 생산부 장관 : Rafael Rey
- 외교부 장관 : Jose Garcia Belaunde
- 보건부 장관 : Carlos Vallejos
- 교통통신부 장관 : Veronica Zavala
- 건설부 장관 : Hernan Garrido Lecca
- 내무부 장관 : Pilar Mazzetti
- 노동부 장관 : Susana Pinilla
- 재정경제부 장관 : Luis Carranza

4. 외교관계

페루의 외교노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차별주의 표방
- 민족자결 및 주권평등주의에 입각한 국내문제 불간섭주의
- 국제평화와 안전의 존중 및 무력위협, 사용의 거부
- 보편성원칙 및 복수이념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국교수립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및 신 국제경제 질서 수립에 적극협력
- 외채문제 해결 및 신규 외자도입을 위한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 대상 경제외교 역점 부여

페루는 상기 외교노선에 따라 북한과도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몇안되는 중남미 국가중 하나이나 대체로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친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2001년 7월 28일에 들어선 톨레도 정부는 집권과정에서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관세 혜택을 받는 등 서방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페루는 '92. 4월에 있었던 친위 쿠데타와 관련 안데안 역내국들이 다소 비판적 자세를 보이자 '92. 8월에 안데안 협정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신, 개별국과는 양자협정을 통해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노선을 취하였다.

이후 '94.4.4일 페루는 역내국간 대외 공동관세 0.5% 적용품목에 대한 역내국간 즉각 시장 개방, '95년도부터 대외 공동관세 10% 품목도 시장개방 확대를 안데안 재가입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여타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입을 지연해 오다, '96. 3월 페루의 트루히요시에서 개최되었던 제 8차 안데안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속을 포함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Andean Community로 확대 발전 시키기로 합의하고 복귀를 기정 사실화 하였다.

그 후 페루는 '97. 4. 11일에 다시 안데안 공동체가 자유경쟁교역체제를 저해하는 매카니즘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97. 8. 1일부로 역내국간의 원산지 규정 및 검역규정 등의 보완과정을 거쳐 역내국간 관세율 인하와 2,500개 품목에 대한 교역 자유화를 전제로 재복귀를 선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데안국간의 교역자유화는 2005년까지 전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를 목표로 추진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페루를 비롯한 안데안 국가들은 안데안 시장통합보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페루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현재 미국측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한편,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정치불안으로 FTA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반면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 정책으로 미국과의 FTA 보다는 MERCOSUR 국들과의 FTA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A (미주자유무역지역)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나라들은 베네주엘라와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국가들로서 서로 단합하여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 MERCOSUR국과의 협력관계 모색

페루는 MERCOSUR국들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 제공과 페루의 대서양권 진출 교두보 확보를 교환 조건으로 MERCOSUR 4개국과 협상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MERCOSUR -ANDEAN 그룹간 협상방식을 통해 10년 내 양 그룹간 자유무역지대 구성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양 그룹은 자유무역지대 완성시기와 관련 안데안 그룹은 향후 18년 이내, MERCOSUR 그룹은 향후 20년 이내를 제시하고 있고, MERCOSUR 그룹은 협상대상품목을 이미 선정해 놓고 있는 반면, 안데안 그룹은 이제 기초 작업 단계에 있는 등 양 그룹간 정치적, 경제적 실리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페루는 MERCOSUR 국가들로부터 품목별로 20%, 30%, 50% 또는 100% 관세를 할인해주는 무역협정만을 체결한 상황으로 진정한 FTA가 체결되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APEC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페루는 태평양 연안 중남미국가로서 멕시코, 칠레 등과는 달리 APEC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98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페루는 APEC을 통해 아시아 권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자본 및 기술 도입 확대, 교역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200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에 Toledo 대통령, Oscar Maura 외교부장관, Alfredo Ferrero 대외무역부장관 등 페루 대표단이 참가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한-페루 FTA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하였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페루의 무역 파트너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SK 등 몇몇 대기업들과는 페루 자원개발과 관련된 투자유치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페루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 기회를 통해 페루가 APEC 회원국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분석되고 있다.

다. 주요국과의 관계

1) 미국

국내 마약 제배 통제 관련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체결시 4대 보장국중 하나로 페.에 국경개발 협력사업에 4천만불 상당을 지원한바 있다.

페루는 미국이 세계 초강국임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국내 문제나 대외문제에 관해 미국이 간섭이나 간여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등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페루는 2002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 혜택으로 의류 등 페루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페루 정부는 2005년 12월 미국과 양자 FTA를 서명하였다. 2006년 6월에는 페루 의회에서 비준되었으며 미의회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본

19세기말부터 일본인의 페루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일본계가 전국에 걸쳐 약 10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계가 주재국 정계, 관계 등 주류사회에 다수 진출중인 상황이다.

특히 1990년-2000년간 일본계 2세인 Fujimori 대통령 집권 기간중 약국은 경제협력 강화, 주요인사 교류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왔으며, Fujimori 대통령 집권 기간 중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주요인사 교류 확대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왔으며, Fujimori 대통령은 집권기간중 거의 매년 일본을 공식 또는 비공식 방문하였다.

Toledo 정부는 Fujimori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과거 Fujimori의 부정·부패 및 반인륜 범죄행위 단죄를 위해 일본정부에 동인의 신병인도를 강하게 요구한바 있었으나

일본측은 Fujimori가 일본국적 보유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여 동건이 양국간 주요외교문제가 되고 전반적인 양국관계도 소원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Alan Garcia 신정부는 Fujimori건에 상관없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중국

1971년 11월 12일 페루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였다. 양국간 수교 이후 각급 정부요인 및 사절단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며, 특히 최근 양국간 교역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9세기 후반 중국인의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페루에는 중국계가 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브라질

브라질은 98.10월 체결된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보장국 간사국으로서 페루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아마존 지역보호 및 개발사업, 남미횡단 교통망(Interocenaica) 확충을 위한 육로, 수로, 항공로 연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

2003년 4월 Toledo 페루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관계 설정에 합의 하였으며, 2003년 8월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페루 답방을 계기로 페루-Mercosur간 자유무역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Alan Garcia 대통령 당선자는 2006년 6월 Lula 브라질 대통령 초청으로 브라질을 방문, 신정부하에서 브라질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5) 볼리비아

페루와 볼리비아는 잉카시대 이전부터 Tihuanaco 문화 등 공통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독립 초기인 짧은 기간 동안(1836-1838) 양국간 연방을 형성했던 시기도 있는 등 문화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이다.

1879년 남미 태평양 전쟁 당시 대 칠레 연합전을 펼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였으며, 페루는 볼리비아의 공단건설, 항구사용권 등을 부여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좌경민족주의 성향의 인디오 출신 Evo Morales 대통령 취임 이후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쿠바와 긴밀해지고, CAN 통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다소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6) 칠레

1879년 칠레와 남미 태평양 전쟁을 벌인바 있으나, 192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선린 우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칠레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1942년 리오 의정

서(1941년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 처리 협정) 보장국의 일원이었다. 1998년 6월에는 양국간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Alan Garcia 대통령 당선자는 6월 22일 Bachelet 칠레 대통령 초청으로 칠레를 방문, 후지모리 송환, 해양경계선 확정문제 등 현안에 앞서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발전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7) 에콰도르

1998년 10월 26일 페루·에콰도르 양국간 평화협정에 서명, 170여년간 지속되어 온 국경분쟁을 종식시키고, 페·에 국경지대 개발 사업(10년간 130억불 투입)을 공동 추진중이다. 같은 안데스공동체회원국으로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8) 콜롬비아

마약퇴치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는 현 Alvaro Uribe 콜롬비아 대통령이 추진중인 콜롬비아 프랜 등 콜롬비아 평화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9) 쿠바

페루는 중남미 국가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1972년 7월 쿠바와 국교를 재개 하였으며, 쿠바의 OAS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라. 한국과의 관계

페루는 한국과 1963년 4월 국교를 수립하여 1964년 3월 공사급 외교관계에서 대사급으로 승격하고 1971년 8월 리마에 페루 상주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1967년 7월 주한 페루 대사관을 개설, 1980년 2월 상주 대사관이 되었다.

1982년 12월 국무총리 김상협, 1993년 8월 정무장관 김덕룡, 1995년 7월 대통령 특사 이영덕, 1995년 8월 외무장관 공로명, 1999년 민간무역협력사절단, 2004년과 2005년에는 오명 과기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이 각각 페루를 방문하였고, 2006년도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최홍건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 페루를 방문한바 있다. 페루에서는 1982년 7월 하원의장 루이스 로카(Luis Roca), 1994년 6월 대통령 후지모리(Fujimori), 1995년 6월 국방장관 빅토르 말카(Victor Malca)가 방한하였고 2005년에는 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Toledo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바 있다.

양국은 1974년 무역협정, 1981년 경제과학기술협정, 1982년 사증면제협정, 1983년 문화협정, 1993년 투자보장협정, 1996년 어업협력 협정(가서명), 2000년 관광협력 협정, 2003년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체결하였다. 2005년에는 대한수입 2억8천만달러, 대한수출은 약 2억5천만달러로서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식물, 가전제품, 합성수지, 수출품은 금속광물, 비철금속, 농산물, 수산물 등이다. 한국은 페루에 지진, 산사태, 엘니뇨 등의 피해 복구 지원금 및 전산장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병원건립, 봉사요원 파견 등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약 3.5백만불을 페루의 보건의료, 교육, 인적자원개발, IT 분야에 지원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 페루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업 실적

으로는 보건소 건립 (Callao, Comas, Iquitos, Huanuco)와 Piura 병원 건립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매년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의료단 파견 등의 원조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주한페루 대사관 주요업무는 한국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정책 홍보, 한국 거주 페루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공증, 국적·호적·여권 및 사증 업무 등이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2시 30분, 13시 30분~17시이며 토·일요일과 페루 독립기념일인 7월 28일등 현지 공휴일과 한국 국경일 등은 휴무이다.

마. 북한과의 관계

북한은 1975년 1월 리마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관계진전 없이 유지되다가, 1985년 7월 취임한 사회주의 성향의 Alan Garcia 대통령 집권기인 1988년 11월 21일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 후 북한측은 리마 주재 통상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며 1989년 11월 초대 이인춘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이후 김경호, 지용호, 유창운 대사 등을 거쳐 현재 김선욱 대사 (2005년 7월 신임장 제정)가 근무중이다.

페루측은 1990년 7월 이후 주중국대사가 북한을 겸임해 오던 중 2003년 8월에 주한 (Bayona) 대사가 북한겸임대사로 신임장이 제정되었다.

1988년 11월 대북한 수교 이후 페루정부는 한국과의 기존우호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대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립. 불간섭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남북한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페루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5-1 고려 대연각센터 빌딩 2002
 - 전화 : 757-1735~7
 - 팩스 : 757-1738
 - E-Mail : 1pruseul@korea.com
 - 근무시간 : 09:00-12:30 & 13:30-17:00(토요일 휴무)
- 페루 공휴일 :
 - . 신년(ANO NUEVO) : 1/ 1
 - . 부활절 : 4/13-4/14 (매년 변동)
 - . 노동절(DIA DEL TRABAJO): 5/ 1
 - . 교황의 날(SAN PEDRO Y SAN PABLO) : 6/29-6/30
 - . 독립기념일(FIESTAS PATRIAS) : 7/27-7/29
 - . 성 ROSE의 날(SANTA ROSA DE LIMA) : 8/30

- 국위선양의 날(COMBATE DE ANGAMOS) 10/ 8-10/9
- 성자의날(TODOS LOS SANTOS) : 11/ 1
- 성모의날(IMMACULADA CONCEPCION): 12/ 8
- 크리스마스(NAVIDAD) : 12/25

- 대사 : Jorge BAYONA MEDINA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 석유류에 대한 세이프 가드 전격 철회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

□ 200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석유류 수출시 세이프가드 적용 안 함

2004년 10월 14일 처음 발동해서 200일 동안 이어졌던 페루의 석유류 세이프 가드가 2005년 5월 4일 전격 철회되었다. 총 20개 석유 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동 조치는 한국의 경우 3개 품목이 대상이 되었던 만큼 이번 철회 조치는 우리 수출업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페루 생산부 장관인 Mr. David Lemor 씨에 의하면 페루의 소비자 보호, 특허, 반덤핑 관련 기관인 INDECOPI(Institut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eteccion de la Propiedad Intelectual)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 본 뒤 석유류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페루로의 석유 수입량이 111%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 생산량도 34%나 증가한 만큼 석유 세이프가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적 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석유류 수입 시 과도한 언더밸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석유류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가격을 선정해 놓은 뒤 수입되는 품목 가격이 그 이하일 경우 미리 책정된 최소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을 1불에 수입했는데 정부에서 책정한 최소 가격이 3불이라면 인보이스 가격과 상관없이 3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동 조치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지만 현재 페루로 수입되는 동일한 석유류의 가격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에 비해서 60% 가량이나 낮은 점을 미루어 이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페루의 석유류에 대한 관세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제도 변경을 거듭하면서 거론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중고 자동차 수입 허용 기간 연장기로 당초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연장

페루는 중고 자동차 수입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중남미 국가 중의 하나로 주로 중고 자동차들이 택시용으로 많이 수입 되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티코, 씨에로, 르망 등 대우 자동차 위주로 대량 수입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페루 정부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중고 자동차 수입 규제 차원에서 그 동안 허용해온 5년식 이하 중고 자동차 수입을 2년식 이하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페루 정부는 종전과 같이 5년 식 자동차 수입을 최소 2008년까지 연장 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하여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업체들이 한숨을 쉬게 되었다.

페루의 중고 자동차 수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의 경우 전체 수입 차 가운데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6%였고 2004년 또한 총 수입량 중 70%로 약간은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아직까지 페루로 수입되는 중고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수입액 중 매년 70% 내외를 차지한다. 이는 페루 국내 자동차 생산이 없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아직 일인당 국민소득이 2천 5백불 정도로 낮은 편이라 새 차보다 중고차가 선호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좋은 지표이다.

페루로 수입되는 중고차 중에서 소형차 중으로는 Toyota Corolla, Nissan Ad Ve, Nissan Ad Dx, Daewoo Tico, Nissan Ad Max, Toyota Caldina, Toyota Sprinter, Nissan Sunny, Mazda Familia, Mitsubishi Libero, Toyota Scarlet과 Nissan Avenir 순으로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는 Mitsubishi Pajero, Daewoo Damas/Coach Van, Hyundai Porter, Toyota Townace, Hyundai Grace, Nissan Caravan, Toyota Hilux, Nissan Vanette 순으로 수입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고차는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총 차량 수입액 중 각각 74%와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칠레와의 국경 지역인 Tacna 등과 같은 항구에서는 운전석이 우측으로 생산되는 일본 차들이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운전석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지 산업을 부흥시키고 실업률을 낮춘다는 이유에서 30%에 이르는 특소세를 Tacna 로 수입되는 차량에 한해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과거 후지모리 시절부터 있어왔던 일본제품에 대한 특혜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페루 제 2 의 중고 자동차 수출국인 만큼 2005년으로 예정되어있던 중고 자동차 수입 금지 법안이 2008년까지 연장되어 아직까지 페루로의 중고차 수출은 전망이 밝은 편이라 하겠다. 현재 중고자동차 수입업자들이 대정부 로비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바 2008년에도 중고자동차 수입금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II . 경제

7. 경제정책

페루는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유치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건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후지모리 시절인 90년대 초부터 과감한 민영화에 착수하여 현재 광산업, 통신업, 운송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메이저들이 투자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음. 실질적으로 페루 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lejandro Toledo 대통령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과거 후지모리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것과 큰 차이점이 없었으며 기본적 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고용증대, 대외경제협력 확대, 인플레이 안정, 빈곤퇴치를 최대 현안으로 삼은바 있다.

산업정책은 광업, 농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촉진 및 고용창출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요 재원조달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및 주요 선진국의 경제원조 유치, 국제금융기구(IBRD, IDB, CAF 등)로부터 신규 외자조달 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안데안국 상품수입에 면세하는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을 활용한 대미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ATPDEA이란 미국에서 자국의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공급국인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 코카인 등 마약 작물을 대체하여 생산된 5,500가지 품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로 수혜를 많이 받은바 있는 페루는 2006년 말로 다가온 ATPDEA 종료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에 정성을 기울여 현재는 합의점을 찾아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페루 정부는 현재 태국과의 FTA 또한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유럽 공동체, 칠레와도 협상 중이다. 2005년 11월에는 톨레도 대통령이 APEC 회의에 참가하여 한국 정부에도 FTA 체결을 건의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페루는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과세제도 및 다소 융통성이 떨어지는 관료주의 등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 7월 28일 정권을 잡은 Alan Garcia 대통령은 선거 당시 아래와 같은 선거공약을 내세웠던바 앞으로 얼마나 실천에 옮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 보건·사회분야

-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추진
- 상수도망 확충
- 사회소외계층에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 유전자 약품의 저가 공급제도 등
- 신정부 출범후 6 개월중 10 만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추진(농가에 대한 금융 대출을 용이 케 하려는 목적)
- 국가 사회분야 사업을 총괄할 기구 설립

나. 교육

- 지방정부에 교육분야 권한 이양 완결
- 지방 교육 특별우대
- 전일교육 실시를 목표로 수업시간 점진적 확대
- 교육분야 예산을 GDP 6% 까지 증액(매년 0.25% 증대)
- 「외채-교육투자」 전환 프로그램 추진
- 교원 봉급인상 및 성과급 제도 도입

다. 무역·경쟁력

-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구 개편
- 정부조달의 최소 30%를 중소기업에 배정
-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강화
- 2008 년 APEC 의장국 수임

라. 인권.사법제도

- 사법적 보호에 대한 전국민의 접근보장 및 인권보호
- 충분한 예산하에 사법기관의 독립적 운영시스템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 시민 판사제도 또는 사법부 운영에 시민 참여제도 제안

마. 빈곤퇴치

- 빈곤퇴치 통합기금 설립
- 초등학교 급식 제도 도입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발전 기금 창설

바. 국정효율.투명성 증대

- 전자정부 구현
- 직업 공무원제도 개혁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근절
- 반부패업무 관련 국가기관.시민단체 강화
- 감사원장을 야당측 추천인사중 의회가 임명

사. 지방자치

- 각급 지방단체 권한을 법률로 규정, 업무.권한 중복 방지
- 광역 수도권 및 지방경제 중심지 구조하에 장기적인 지방 분권정치 추진
- 조세의 지방배분 기준 개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립

아. 치안.폭력 근절

- 국립경찰의 현대화와 경찰 처우 개선
- 대화.합의를 통한 사회분쟁 해소 정책 시행
- 테러리스트 활동지역의 평정화 및 코카인 대체사업 강화
- 수형자 감형 혜택 축소 및 재범자에 대한 감형 금지

자. 마약문제

- 마약거래 및 소비문제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취급 :
- 마약 및 마약제조 물질의 거래 관련 돈세탁 단속 강화
- 빈곤대처와 연계되도록 마약 대체개발 프로그램 개혁

차. 천연자원 및 사회간접자본

- 유류가격인하(에타놀 혼합사용 및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통해 가격 인하 추진 : 약 25% 인하까지 가능 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기업과 기존 Camisea 가스전개발 계약 재교섭
- 수도권 및 내륙지방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 공급망 확대
- 28 개 내륙연결 도로 건설
- 서민층의 주택보유 확대 사업 시행

카. 경제.고용확대

- 연간 7% 성장 달성과 ‘견실한 고용’ 창출
- 일 8 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지불, 부당해고 방지제도 확립
- 오지(Sierra)의 수출창출 사업시행(집권 5 년간 일자리 30 만개 창출)
- 중소기업, 농업 및 공예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지원 계획 시행
- 미국과의 FTA 서명 지지

알란 가르시아 신정부는 최근 국제광물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외국계 광산 및 석유 회사들과의 계약을 재교섭하겠다고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조치가 페루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장애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 정책 방향인 경제성장, 고용증대, 대외경제협력 확대, 인플레이션 안정, 빈곤퇴치는 과거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GDP 연도별 성장률

(단위: 백만 불,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51,963	53,513	54,196	56,893	60,577	68,421	78,200	92,158
GDP 성장률	1.4	3.1	0.2	5.2	3.8	5.1	6.2	6.6

자료원: 페루 경제부

* 2006년은 예상치 임

2006년 상반기중 페루 경제는 당초 예상 성장율인 5%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반기중 시행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다.

최근 페루 경제는 지난 30년간 중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의 경제호황 원인은 수출이 51개월간 기록적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 또한 올 상반기중 산업용 자본재가 48% 증가하는 등 원자재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활발한 생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율 및 인플레이션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2005년의 경우 GDP 성장률은 6.2%에 이르렀으며 광업, 건설, 제조, 서비스 부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바 있다.

- 광업: 안타미나 광산 생산 및 수출 본궤도 진입, 금, 은 생산 호조, Camisea 가스전 개발 완료 및 보급 개시

- 건설업: 국도 및 지방도로 개 보수, 정부 주도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 공급 추진, 민간 자본에 의한 건축 경기 활성화
- 제조업: 안데안 특혜관세법 시행으로 섬유 관련 업종 활성화

주요 업종별 성장률

(단위: %)

	농수산업	광산	제조	건설	상업	서비스	계
2001	0.5	11.2	0.3	△6.7	1.1	△0.2	0.3
2002	5.7	11.6	4.2	7.9	4.6	3.8	4.9
2003	2.2	6.9	2.2	4.2	3.8	4.0	3.8
2004	△1.1	5.4	6.7	4.7	4.7	6.0	5.1
2005	4.8	8.1	6.5	8.4	5.2	6.3	6.2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수출입 현황

(단위: 백 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10)
수 출	7,028	7,505	7,688	8,806	12,547	17,000	18,736
수 입	7,359	7,197	7,427	8,454	9,818	12,547	12,491
수 지	△331	△90	261	352	2,729	4,453	6,245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페루의 2004 년 주요 수출 품목은 1 차 산품이 73%로서 이중 광물이 77%, 수산물 12%이고 농산물이 3.9%, 원유 및 부산물이 7.1%였으며 공산품이 27%로서 이중 섬유류가 31.4%이며 농수산 가공품이 23% 등이었다.

2004 년 수입의 경우 소비재가 20%, 중간재가 54.5%, 자본재 24%이었으며 전년 대비 16.1% 증가한 반면 수출은 42.5%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교역량이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하였다.

페루의 2006년 1~5 월 간 총 수출은 미화 8,055.15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7.54%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미화 5,954.80백만으로 21.42%가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무역수지는 미화 2,100.35불로 전년동기대비 48.81%가 증가하였다. 수출은 금, 은, 동, 구리, 아연, 납을 비롯한 페루의 광물이 올 1~5월간 전년동기대비 40.7%가 증가한 미화 4,974.1백만으로 총 수출액의 61.7%에 달해 수출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06년 상반기 (1~6월)중 한-페루간 교역도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7%가 늘어난 미화 177백만,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5.1%가 증가한 미화 248백만 불에 달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것이며 수입증가의 원인은 아연, 구리, 철광 등 광물의 수입증가 때문이다.

환율 추이

(단위: Sol/.)

기준 일자	'02.12	'03.6	'03.12	'04.6	'04.12	'05.10	'05.12	'06.6
환율(Sol/\$)	3.514	3.471	3.469	3.477	3.281	3.381	3.43	3.26

주1: 기준 일자의 월 표시는 월말 기준임('05. 12는 12월 31일 기준임)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페루는 미 달러화가 현지화(솔: Sol)와 함께 시장에 그대로 통용됨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달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루 화폐인 솔화는 2002년 이후 계속 고 평가돼 2002년 말 환율이 미화 1달러 = 3.5솔에서 2004년 12월 1달러 = 3.281솔로 6%이상 평가 절상 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입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부터 다시 평가절하가 진행되어 2005년 12월말 평균 환율이 1달러=3.43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중앙 은행의 시장으로부터의 달러 매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현재에는 환율이 1달러 = 3.2솔 수준으로 현지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물가상승률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1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0.13	1.52	2.5	3.48	1.49	1.11

자료 원: 페루 중앙은행

2005년도에는 물가를 위협할 만한 내부 요인이 없었으며 경제가 안정되면서 현지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하여 국제 원유가가 물가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 1%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06년의 경우 당초 대선과 총선여파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현재까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06년 7월 28일 재집권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1985년~1990년 처음 대통령이었을 당시 네자리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록 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9. 주요 산업 동향**가. 페루 광업 동향****□ 페루 자원개발현황, 우리나라의 진출사례 및 수출확대방안**

페루는 중남미에서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2005년 GDP가 780억 달러에 달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도 2000달러 에서 2004년에는 2500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 급증하면서 매년 4~5%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동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은 3.5%에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후지모리 정권시절(1990-2000) 광산업이 전격적으로 민영화되면서 동 업종이 페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의 경우에는 광업이 총 GDP의 6.6%를 차지했고 전체 수출액의 5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광물 수출 중 금, 동 그리고 아연이 전체 수출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페루 자원 보유현황

종 류	세 계	라틴아메리카
금	6 위	1 위
은	2 위	2 위
동	3 위	2 위
납	4 위	1 위
주 석	3 위	1 위
아 연	2 위	1 위
합 연	2 위	1 위

광산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광물탐색이 용이해져서 세계적인 광산회사들인 Newmont(미국), Barrick(캐나다), BHP Billiton(호주) 그리고 Phelps Dodge(미국) 등이 자원 보유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 국가 중 한곳이 바로 페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애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는 사회적인 불안을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페루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을 꼽을 수 있다.

2002년 6월 Tambogrande 주민들 중 94%가 반대해 Manhattan Minerals (캐나다)사가 추진 하던 San Lorenzo Valley, Piura에서의 금광개발이 물거품이 된 바가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Newmont(미국)사의 Yanacocha 광산이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직면해 Cajamarca 의 Cerro Quilish 금광 개발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환경을 의식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외국인투자 이탈은 페루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에 광물 가격이 낮아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페루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페루에서는 일일 채굴량에 따라서 광산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는데 대형의 경우 하루에 5천 톤 이상 생산해야 하며 중형은 350톤에서 5000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은 350톤 미만인 광산을 의미한다. 그 중 대형 광산에서 전체 채굴량의 95%가 생산되고 중형과 소형에서 각각 4%와 1%가 채굴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 주요 광산업체 현황

회사명	소유주	생산광물
Minera Yanacocha	Newmont/Buenaventura (미국/페루)	금
Southern Peru Copper Corp.	Grupo Mexico (멕시코)	동
Compania Minera Antamina	BHP Billiton/Noranda/TeckCominco/Mitsubishi (호주/영국/캐나다/일본)	동/아연
Minera Barrick Misquichilca	Barrick (캐나다)	금
Sociedad Minera Cerro Verde	Phelps Dodge/Sumitomo/Buenaventura (미국/일본/페루)	동
BHP Billiton Tintaya	BHP Billiton (호주/영국)	동
Minera Aurifera Santa Rosa	개인 (페루)	금
Shougang Hierro Peru	Shougang (중국)	철
Aruntani	개인 (페루)	금
Volcan Compania Minera	개인 (페루)	동
Doe Run Peru	Doe Run (미국)	동

페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전체 동으로서 Antamina, Southern Peru 그리고 BHP Billiton Tintaya등과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의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

철을 생산하는 회사는 Shougang Hierro Peru 단 1개사로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의 경우 Volcan, Buenaventura, Ares, Antamina, Los Quenales 그리고 Atacocha등에서 페루 전체 은 생산량의 54%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에서의 주석 생산량도 꾸준한 성장 추세이며 MINSUR사가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금의 경우에는 Yanacocha, Barrick Misquichilca, Ares 그리고 Buenaventura사가 전체 생산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Volcan, Atacocha, El Brocal, Los Quenales, Chungar 그리고 Milpo사가 전체 63%를 생산하는 납의 경우 약간은 생산량이 주춤한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아연의 경우, 생산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Volcan, Antamina, Los Quenales, Milpo, Atacocha 그리고 El Brocal 등과 같은 회사들이 전체 아연생산량의 7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K가 Camisea 유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공사, SK, 대우 등이 8광구에서 원유를 생산 중에 있으며 LS 니꼬 및 광업 진흥 공사에서도 페루의 마르꼬나 동 광산 개발참여를 위해서 페루에 주재원을 각각 파견해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는 광업이 대표산업이다. 페루 에너지 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에 따르면 2005 년과 2006 년 2 년간 19 억불이 광업에 투자될 전망이며 주로 동, 금, 철, 납, 은, 주석과 아연 광산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광산장비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43.3%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브라질 (12.3%), 일본(9.1%), 캐나다(5.4%), 스웨덴(4.1%), 그리고 독일(2.6%)등이 따르고 있다. 참고로 현지에서는 광산장비 생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 년간 수입량이 급증하였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5 년에서 2007 년까지도 연 평균 8~10%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페루 에너지 광업부에 의하면 향후 5 년간 외국자본 60 억 달러가 투자돼 Alto Chicama, Cerro Verde, Ilo Foundry, Rio Blanco, Toromocho, Las Bambas 등의 프로젝트가 개발될 예정이다.

○ Alto Chicama

- 페루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 720만 온스가 매장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는 광산으로 현재 캐나다의 Barrick사가 개발 중에 있다. 2005년 5월까지 2억550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앞으로 85만 달러 가량이 추가로 투자될 전망이다. 2005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간 금 54만 온스가 생산될 전망이다.

○ Cerro Verde

- 미국의 Phelp Dodge사는 페루 제2의 도시인 Arequipa에 위치한 Cerro Verde 광산에 8억5000만달러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 Ilo Foundry

- 멕시코 Southern Peru Copper Corp. 사에서는 Ilo Foundry 광산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하며 늦어도 2006년 하반기에는 광산이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 Rio Blanco

- 연간 25만 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에콰도르 국경과 인접한 페루 북부의 Rio Blanco 동 광산은 영국의 Minera Majaz사가 2008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 Toromocho

- Concessionaire Peru Copper Syndicate사는 현재 Toromocho 광산을 탐색 중이며 동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2010년 생산개시를 목표로 5억 달러를 투자예정이다.
- Toromocho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갖는 몇 가지 장점으로 리마시와의 지리적인 근접성을 들수 있다. 토로모초 동광은 Carreterra Central 142km 지점에 있어 리마시와의 연결면에 있어서 페루에서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한 광산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리마까지는 철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각종 장비를 공급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광물을 리마로 운송하기에도 편리하다. 토로모초 동광은 La Oroya 제련소와도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 Las Bambas

- 스위스의 Xstrata Copper사는 페루 남부지역에 위치한 Las Bambas 금/동 광산의 운영권을 2004년 8월에 획득했으며 향후 10억 달러가량 투자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새로운 광산개발 프로젝트들로 인한 장비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나 수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일단, 광산이 대부분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리마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운송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광산들이 고산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모든 장비들은 해발 3000~4000m 이상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현재 페루에는 Newmont, Noranda, Barrick Gold, BHP Billiton, Phelps Dodge, Grupo Mexico 등과 같은 세계적인 광산회사들이 많이 진출한 관계로 광산장비 업체들은 사무실을 광산 근처 혹은 아예 광산안에 만들어서 수시로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다. Ferreyros, Ingersoll Rand, Kenworth-Paccard 등이 이와 같이 광산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Caterpillar 제품을 수입하는 Ferreyros 사의 경우에는 Caterpillar Financial Services를 활용한 금융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reyros (Carterpillar), Mitsui Maquinarias Peru (Komatsu, Atlas Copco, Sandvik del Peru) 등과 같은 페루 주요 광산장비 수입업체들은 주로 핀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들은 광산에 방문하기도 하고 리마시에 위치한 주요 광산회사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장비 유통에 있어서 E-commerce 가 최근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데 B2mining 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모든 거래에 효율성 및 가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후지모리 정권시절 광업을 전격적으로 민영화 시킨 관계로 현재 페루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광산은 100% 민간 기업인데 외국자본이 페루 광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산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 광산회사로 Newmont, Rio Algom, Teck, Grupo Mexico, Barrick, BHP Billiton, Phelps Dodge, Doe Run, Santa Rosa, Volcan and Shougang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중형 광산회사로는 Grupo Benavides, Grupo Brescia Grupo Arias, Grupo Hochschild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이 광산장비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품질과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규모에 따른 금융지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페루는 광산장비 수입에 있어서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관세는 제품에 따라서 4%, 7%, 12%, 20%, 25%로 나뉜다. 부가세는 19%이며 자동차의 경우 30%의 특소세가 추가된다.

페루에 광산장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리마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페루 유명 광산회사들과 꾸준히 접촉해 신용을 쌓을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제품 수출 이외에도 기술자문, 사후관리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야 지속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현지 투자진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페루 IT 산업동향

□ 외국계 대기업들이 성장 주도

페루 정부는 IT산업 육성이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민간 업계의 투자촉진 및 사용자 저변확대 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재정상태가 빈약해 관주도형의 기반조성은 어려운바 9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시장의 과감한 민영화에 착수하여 페루의 IT산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계 통신업체인 Telefonica del Peru, 미국계 업체인 Nextel, 멕시코계 업체인 Claro 등이 주도하고 여타 군소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나 페루 경제구조 및 규모의 낙후성으로 IT분야의 실수요자가 아직 제한적이고 일반 국민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관심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인터넷 사용 편의제공을 위한 페루식 PC방인 'Cabina Publica'에서 서민들이 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최근 Cabina Publica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격 또한 대폭 저렴해졌다고 한다.

페루는 전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시절인 94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면서 통신부문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국영통신공사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스페인 통신공사(Telefonica de Espana)가 영업권 국제입찰 형태로 페루 통신시장에 참여하게 된 이래 꾸준히 시장개방정책을 펴오고 있다.

통신분야는 광업분야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업부문에 통신시장 개방정책을 펴온 결과 민영화 추진 전체인 93년도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와 2005년에는 유선전화 가설회선수가 265만회선 이동통신 이용회선이 558만 회선으로 증가한바 있다.

페루의 유무선 전화 회선 수

(단위: 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유선전화	2,022	2,027	2,045	2,049	2,395	2,650
무선전화	1,340	1,793	2,307	2,930	4,092	5,583

아직도 유선통신망 부문에서는 지난 94년도에 실시된 페루 통신시장 개방 1단계 민영화 조치시 국제입찰에 참여해 유선통신시장을 장악했던 스페인 통신공사(Telefonica de Espana)의 현지 투자법인인 Telefonica del Peru가 거의 독점체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페루 제2의 유선통신사였던 Bellsouth를 Telefonica사가 Comunicaciones Moviles del Peru라는 이름으로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60.6%로 넓힌바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의 Nextel사(4.5%)와 멕시코의 Telmex(Claro)사 (34.9%)가 양분하고 있다.

최근에 이탈리아의 TIM사를 멕시코의 Telmex사가 인수해 Claro라는 상호로 현재 페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Telefonica의 독점시장인 페루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페루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GSM, CDMA, IDEN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Telefonica del Peru사가 CDMA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50% 이상을 CDMA 방식이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Telefonica사가 GSM도 병행하여 CDMA 방식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페루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

(단위: %)

구분	Telefonica	Bellsouth	Nextel	Claro
2000년	67.0	27.8	5.1	-
2001년	60.4	23.9	6.1	9.5
2002년	53.7	23.8	5.6	16.8
2003년	51.4	22.2	5.0	21.4
2004년	51.9	16.6	4.5	26.9
2005년	60.6	-	4.5	29.1

자료원: OSIPTEL

페루 이동통신 업체별 채택기술

구 분	채택기술	주파수
Telefonica	CDMA, GSM	800MHz
Claro	GSM	1900MHz
NEXTEL	IDEN	800MHz

자료원: OSIPTEL

현재 페루의 인터넷 사용자들 중 36% 가량이 컴퓨터를 가정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나머지는 회사, 학교, Cabina Publica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페루에서 가장 선호되는 컴퓨터 브랜드로는 Dell, HP, Compaq, IBM 등을 꼽을 수 있다.

페루의 컴퓨터 수입현황

(단위: 달러)

국 가	2003	2004	2005
멕시코	14,024,707	25,807,703	29,375,220
미 국	16,915,702	18,250,660	20,790,269
중 국	10,748,375	16,693,270	18,813,550
아일랜드	64	163,786	1,205,274
브라질	753,725	1,468,211	979,367
말레이시아	2,073,421	1,447,840	800,056
대 만	840,790	364,525	469,255
싱가폴	178,117	131,382	434,158
캐나다	80,065	491,512	370,836
독 일	71,717	127,619	345,228
아르헨티나	5,012	195,404	298,080
대한민국	65,932	630,631	283,142
영 국	148,559	439,484	221,638
기 타	2,018,209	2,406,675	859,176
총	47,924,395	68,618,702	75,245,249

자료원: 관세청

주로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으로부터도 저가로 많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페루의 소프트웨어류 및 솔루션과 SI등의 콘텐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동안 보류해 왔던 민간업체와 공공부문의 사무 자동화 및 시설 현대화 작업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활발한 부문은 민간부문에서는 금융, 통신, 광업 등의 업계와 정부부문으로 SI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문의 시장은 특히, 해적물의 범람으로 각종 SW류의 정품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현지 취급상의 견해로는 SW 종류별로 각각 전체 수요의 최저 50%, 최고 90% 정도가 해적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페루의 소프트웨어 수입현황

(단위: 달러)

국 가	2003	2004	2005
미 국	4,070,887	4,047,132	4,567,581
독 일	163,543	309,095	3,729,430
핀란드	140,339	120,462	1,304,039
영 국	58,492	224,785	848,852
스웨덴	4,309	21,339	533,824
벨지움	13,866	71,810	386,828
이탈리아	18,285	16,873	237,973
아일랜드	136,996	70,180	218,687
프랑스	25,736	74,209	206,167
캐나다	89,645	224,373	195,701
중 국	63,147	73,473	110,905
대한민국	159,935	8,548	34,030
기 타	500,415	1,345,010	785,700
총	5,445,595	6,607,289	13,159,717

자료원: 페루 관세청

페루는 1990년대 초반부터 IT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국자본에 대한 완전개방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IT 분야를 선진국 대기업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IT 분야 중 일부 분야만 기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균형된 장기발전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투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페루 정부에서는 IT 분야의 성장이 국가발전을 의미하고 빈부격차 해소, 정부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화 등을 가속화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Government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MEF).(경제부)
 - www.mef.gob.pe
-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상공부)
 - www.mincetur.gob.pe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 (외무부)
 - www.rree.gob.pe
- Ministerio de Agricultura(농업부)
 - www.minag.gob.pe
- Ministerio de Salud(보건부)
 - www.minsa.gob.pe
- Ministerio de Transportes, Comunicaciones, Vivienda y Construcción(교통.통신.주택.건설부)
 - www.mtc.gob.pe
- Ministerio de Trabajo (노동부)
 - www.mintra.gob.pe/
- Ministerio de la producción(생산부)
 - www.produce.gob.pe
- Agencia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투자진흥기관)
 - www.proinversion.gob.pe
-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금융감독원)
 - www.sbs.gob.pe
- Institut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INDECOPI). [소비자보호, 특허, 반덤핑 관련 기관]
 - www.indecopi.gob.pe
- Aduanas del Perú(관세청)
 - www.aduanet.gob.pe
-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UNAT) [국세청]
 - www.sunat.gob.pe
- Comisión para la promoción de Exportaciones(PROMPEX) [수출진흥기관]
 - www.prompex.gob.pe

나.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Comunidad Andina(ANCOM 기구)
 - www.comunidadandina.org/
- Asociación de Exportadores(수출진흥기관)
 - www.adexperu.org.pe/

- Camara de Comercio de Lima(리마상공회의소)
 - www.camaralima.org.pe/
- SEDAPAL(수도국)
 - www.sedapal.com.pe/
- Bolsa de Valores de Lima (BVL) [리마증권시장]
 - www.bvl.com.pe/
- Centro de Estudio y Promocion del Desarrollo.(과학기술센터)
 - www.desco.org.pe/

다. 금융기관, 투자회사

-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중앙은행)
 - www.bcrp.gob.pe

라. 언론기관 및 각종 인쇄물

- El Comercio(페루 최대 일간지)
 - www.elcomerciooperu.com
- Diario Gestion(페루 최대 경제지)
 - www.gestion.com.pe
- El Peruano(페루 관보)
 - www.elperuano.com.pe
- Compendio Estadística (통계 요람)
 - www.inei.gob.pe
- Empresas y Negocios(상공회의소 주간지)
 - www.camaralima.org.pe/
- SNI Industria Peruana(산업협회 월간지)
 - www.sni.org.pe

마. 기타

- 페루 옐로우 페이지
 - www.amarillastelefonica.com.pe
- Telefonica del Peru S.A.(전화회사)
 - www.telefonica.com.pe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페루 거시경제 통계

구 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백만불	53,989	56,546	61,081	71,388	72,000
GDP 성장률	%	1.9	0.4	1.9	4.0	6.2
1 인당 GDP	US\$	2,049	2,114	2,250	2,592	2,925
1 인당 GDP 성장률	%	▽0.4	△2.6	△1.7	△2.0	17.8
물가상승률	%	▽0.13	△1.52	△2.48	△3.48	1.49
실업률	%	8.8	9.7	10.3	10.5	7.6
수출(FOB)	백만불	7,026	7,714	9,091	12,617	17,000
수입(FOB)	백만불	7,221	7,422	8,255	9,824	12,547
무역수지	백만불	-195	292	836	2,793	4,253
경상수지	백만불	-1,114	-1,063	-9352	-10	462
외채총액	백만불	27,196	27,872	29,587	31,117	28,348
외환보유고	백만불	8,613	9,598	10,194	12,631	14,097
환율	SoI/US\$	3.51	3.49	3.48	3.41	3.43
최저임금	SoI	410.00	410.00	427.00	460.00	500.00

자료원: 페루 통계청(INEI)

12. 무역통계

가. 한국과의 무역 통계

총괄표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0	213,412	12.5	142,928	83.1	70,484
2001	187,837	-12.0	116,345	-18.6	71,492
2002	195,834	4.3	204,570	75.8	-8,736
2003	204,397	4.4	194,417	-5.0	9,980
2004	245,026	19.9	283,116	45.6	-38,090
2005	282,285	15.2	249,489	-11.9	32,796
2006 (1-11)	316,313	20.8	655,093	206.7	-338,780

자료원 : KOTIS

대페루 품목별 수입(상위 10개 품목)

(단위 : 불, %)

품목명	2005		2006 (1-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동광과 그 정광	73,216,420	4.0	182,674,264	149.5
아연광과 그 정광	74,626,451	-19.4	314,275,529	395.5
연광과 그 정광	30,303,096	6.7	56,134,580	147.8
철광과 그 정광	23,359,096	-19.1	28,358,935	198.8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연체동물	9,641,975	-2.3	15,173,546	61.8
정제하지 않은 동과 전해 정제용의 동양극	4,129,528	-29.5	5,013,976	21.4
갑오징어, 오징어	4,359,881	-6.4	8,055,506	100.1
냉동한 피레트	4,453,021	0.5	5,127,874	28.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2,799,486	-19.7	2,194,852	-21.6
커피	5,725,375	-18.6	9,320,717	93.7
합계	249,488,876	-11.9	655,093,362	206.7

자료원 : KOTIS

대페루 품목별 수출(상위 10개 품목)

(단위 : 불, %)

품목명	2005		2006 (1-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경질석유 및 조제품	22,856,341	-55.0	7,963	-100.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21,651,961	-12.4	24,745,305	19.0
폴리에틸렌(비중0.94이상)	21,427,677	27.6	25,054,264	29.7
폴리에틸렌(비중0.94이하)	14,269,155	18.4	14,008,102	5.1
1500 초과 3000 이하 (불꽃 점화식)	10,774,722	255.3	17,536,329	85.3
폴리프로필렌	10,705,938	573.7	2,608,721	-73.5
1500 초과 2500 이하 (압축 점화식)	10,599,684	115.6	13,532,618	53.7
총중량5톤이하 화물자동차	8,678,302	35.9	11,925,605	40.5
대중 수송용 승용자동차	6,094,141	101.6	8,953,218	47.9
2500 초과(압축 점화식)	5,321,712	46.7	5,598,310	7.4
합계	282,285,124	15.2	316,313,099	20.8

자료원 : KOTIS

나. 페루 전체 무역 통계

총괄표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FOB)		수입(CIF)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2	7,665	10	7,449	3	216
2003	8,940	17	8,429	13	511
2004	12,370	38	10,111	20	2,259
2005	17,045	38	12,789	26	4,256
2006 (1-6)	9,963	29	7,231	23	2,732

자료원 : 페루 세관

품목별 수입

(단위 : US\$ CIF 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1-6)
석유 및 역청유	884,633	1,099,951	1,793,148	1,134,006
기타 석유 및 역청유	259,067	450,535	412,072	251,614
기타 밀과 메슬린	175,243	211,953	211,152	100,466
사료용 옥수수	116,484	153,999	168,705	95,617
대두유 추출 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122,929	152,333	160,844	73,522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	121,184	150,255	188,117	125,736
의약품	100,460	104,967	124,874	63,550
1500 초과 3000 이하 승용차	80,550	86,348	126,267	80,123
조유	99,351	131,303	127,944	65,189
기타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76,175	86,655	116,230	53,386

자료원 : 페루 세관

품목별 수출

(단위 : US\$ FOB 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1-6)
가공하지 아니한 금	2,051,321	2,339,584	3,046,016	2,209,131
음극과 음극의 형재(동)	784,763	1,257,429	1,738,783	1,549,419
어류의 분, 조분	742,233	954,023	1,147,456	794,885
동광과 그 정광	421,976	1,098,690	1,409,967	1,409,967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94,581	406,701	1,149,378	452,250
아연광과 그 정광	430,154	479,384	683,215	751,997
경질석유 및 조제품	65,932	137,223	588,968	331,757
연광과 그 정광	137,974	219,772	312,350	183,364
커피	181,039	289,903	306,075	168,527
가공하지 않은 은	191,038	260,156	280,597	263,876

자료원 : 페루 세관

국가별 수입

(단위 : US\$ CIF 천)

국 가	2003	2004	2005	2006 (1-6)
미 국	1,564,600	1,988,925	2,261,535	1,225,951
중 국	644,374	767,474	1,090,379	654,287
브라질	549,295	700,393	1,043,458	671,046
에과도르	656,276	665,572	914,723	604,022
콜롬비아	498,521	783,260	786,999	388,764
아르헨티나	524,701	560,316	734,748	366,354
칠 레	429,918	470,789	625,346	393,691
베네수엘라	315,853	688,074	530,335	343,966
일 본	368,386	359,192	458,839	256,215
독 일	243,171	273,981	407,217	270,045

자료원 : 페루 세관

국가별 수출

(단위 : US\$ FOB 천)

국 가	2003	2004	2005	2006 (1-6)
미 국	2,409,820	3,563,485	5,179,302	2,959,762
중 국	676,972	1,235,278	1,860,861	1,232,916
칠 레	412,576	634,554	1,128,592	731,556
캐나다	136,394	312,445	1,021,867	886,207
스위스	672,022	282,047	786,299	895,744
일 본	391,171	551,992	604,451	609,707
스페인	302,757	414,917	557,698	395,536
네덜란드	181,559	369,542	521,116	297,575
독 일	254,884	381,905	515,033	370,997
브라질	231,229	356,134	452,940	396,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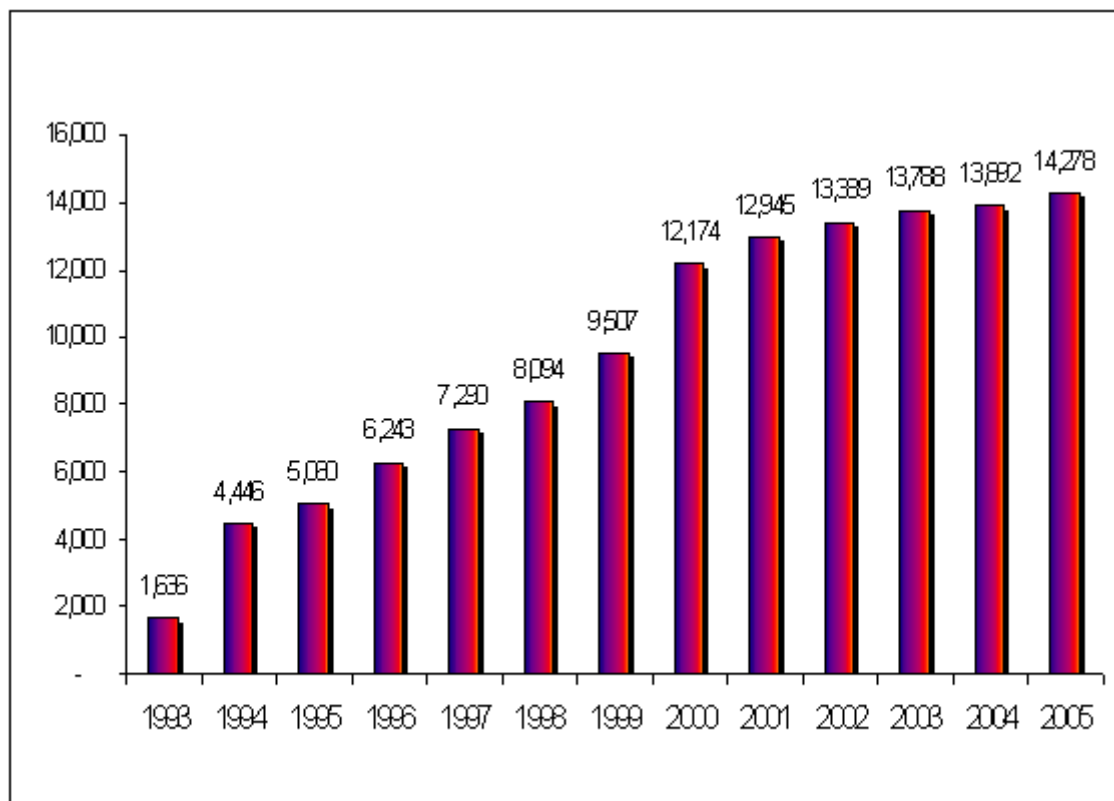
자료원 : 페루 세관

13. 투자통계

페루는 지난 후지모리(1990년~2000년) 정권시절 광산, 통신, 금융 분야 등에서의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1980년대의 경제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5년 페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43억불로 10년전 50억불의 3배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후지모리 대통령에 이어 톨레도 대통령이 경제성장, 대외경제협력 확대,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및 주요 선진국의 경제원조 유치,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신규 외자조달 등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페루 외국인 직접투자 (FDI) 동향

(단위 : 백만불)



자료원 : Proinversion

최근 몇 년간 지속된 5% 전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역량이 외국인 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6년 6월 4일에 치러진 페루대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알란 가르시아(56) 전임 대통령이 상대 후보인 민족주의 좌파 오안타 우말라(43) 후보를 제치고 당선됨으로써 투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루는 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편인데 현재 스페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뒤를 미국과 영국이 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전체 금액 중 65%를 통신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주로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국 가	2001	2002	2003	2004	2005
스페인	4,356.09	4,398.35	4,400.72	4,719.76	4,726.0
미국	1,954.21	1,818.58	1,855.64	2,041.97	2,262.3
영국	2,430.94	2,518.05	2,596.23	2,227.48	2,227.4
콜롬비아	79.05	478.61	849.19	849.23	849.5
네덜란드	1,077.97	1,095.79	1,163.41	1,154.10	779.2
파나마	552.38	564.41	597.32	601.15	602.8
칠레	577.36	609.90	591.67	492.48	490.5
멕시코	36.47	36.79	36.79	36.79	431.6
이탈리아	58.06	63.91	167.11	269.60	269.6
스위스	248.15	249.61	259.29	264.00	268.1
일본	98.63	102.13	102.15	102.15	228.2
우루과이	151.46	150.95	147.74	162.97	168.2
캐나다	160.39	60.40	160.40	160.45	160.8
중국	122.16	122.16	122.16	122.16	122.2
한국	20.69	28.22	39.29	44.82	44.8
기타	1,020.99	991.14	698.89	642.87	647.0
TOTAL	12,945.00	13,389.00	13,788.00	13,892.00	14,278.1

자료원: Proinversion (페루 투자청)

업종별로는 현재 통신분야가 35% 수준으로 외자유치가 가장 활발하였고 그 뒤를 광업과 금융, 산업, 에너지 분야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 통신업계에는 스페인의 Telefonica와 멕시코의 Claro 등이 투자를 하여 유무선 통신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광물가격이 상승하자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앞 다투어 페루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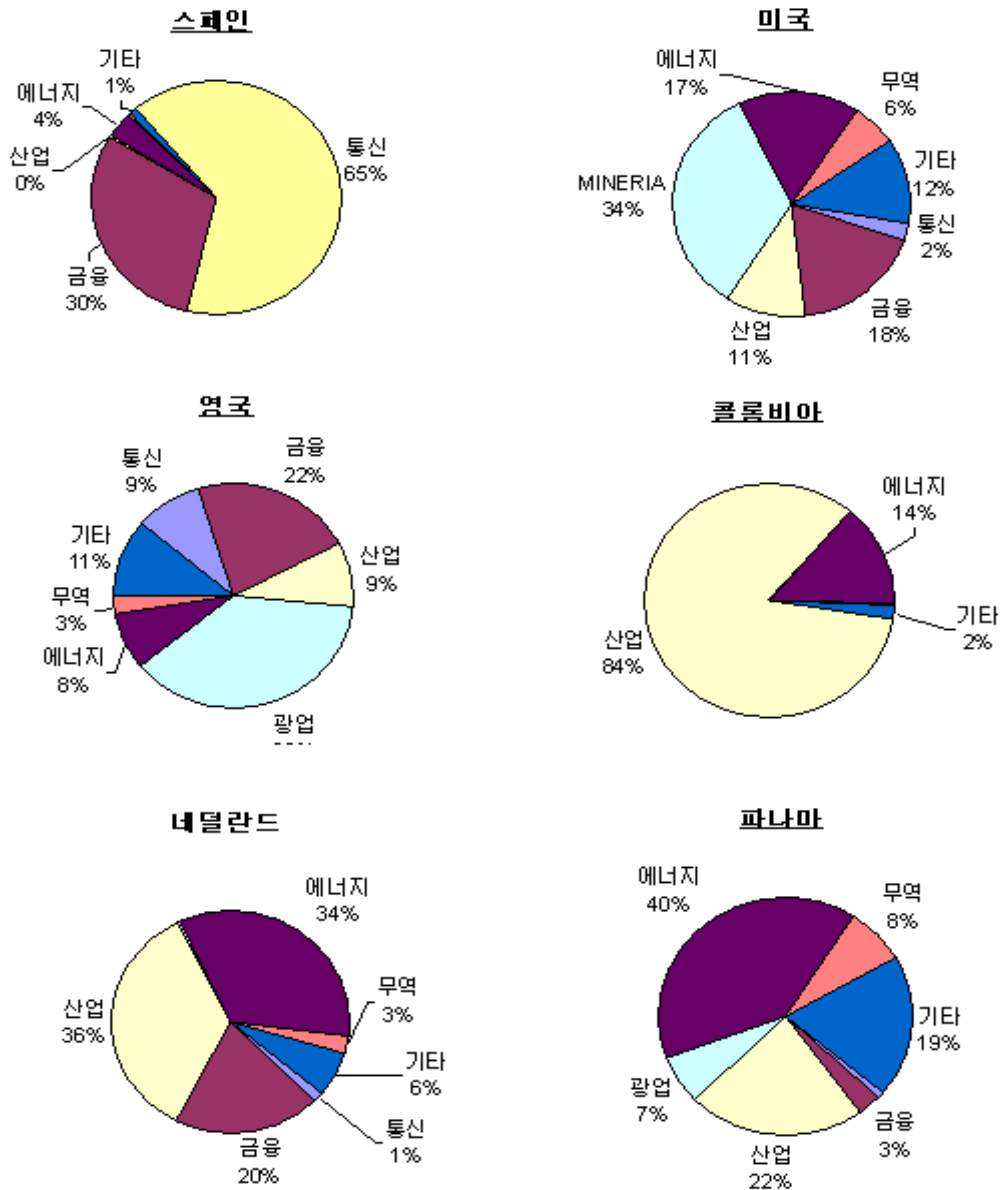
(단위: 백만불)

분 야	2001	2002	2003	2004	2005
농 업	44.40	44.40	44.40	44.40	44.40
무 역	640.22	638.60	617.00	631.92	632.63
통 신	4,601.53	4,903.99	4,932.12	4,953.22	4,953.24
건 설	70.63	70.63	80.63	81.50	81.50
에너지	1,599.17	1,603.31	1,612.62	1,635.12	1,637.62
금 융	2,045.59	1,859.32	1,709.64	1,921.16	1,933.40
산 업	1,724.07	1,857.12	2,245.13	2,040.56	2,044.44
광 업	1,695.32	1,698.47	1,699.32	1,758.74	2,115.78
어 업	0.55	0.55	0.55	0.55	0.55
석유업	157.93	207.93	207.93	176.22	176.22
서비스	185.61	231.95	249.07	255.86	265.38
문 화	1.24	1.24	1.24	1.24	1.24
교 통	105.77	198.46	311.89	313.45	313.45
관 광	58.37	58.37	62.10	62.10	62.10
기 타	15.04	14.30	14.70	15.81	16.11
TOTAL	12,945.45	13,388.65	13,788.34	13,891.87	14,278.06

자료원: Proinversion

페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위 6 개국의 분야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통신업과 금융업에 투자가 50% 몰렸을 정도로 페루에는 외국계 통신회사나 외국계 은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통신회사로는 스페인의 Telefonica, 멕시코의 Claro, 미국의 Nextel 등이 대표적이며 은행으로는 스페인의 BBVA와 미국의 Citibank 등이 있다.

상위 6개국의 분야별 투자동향



자료원: Proinversion

페루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광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가 산업의 중심지이자 수도인 리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페루의 경제부 투자국(Proinvers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페루 투자진출 현황은 2005년 12월까지 약 4천 4백만불 정도로 1995년 이후부터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장 투자액이 큰 분야는 운송업 분야로 전체 투자액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액	20.69	28.22	39.29	39.44	44.82

자료원: Proinversion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송업, 금융업 및 무역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무 역	금 융	산 업	광 업	석 유	운 송	TOTAL
투자액	5.75	9.00	5.88	4.14	0.10	19.95	44.82

자료원: Proinversion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SK, 대우, LG 등 대기업과 석유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는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 등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트레이딩에 종사 하는 소규모 자영업 등이다.

페루 유전개발에 SK, 대우, 석유공사가 아마존 지역 8 광구에 투자하였고 SK 는 Camisea 가스전에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와 LS-Nikko 가 각각 Marcona 동광에 지분을 15%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는 해안선이 길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몇몇이 페루 북부의 Tumbes 지역등에 투자하여 활동 중이다. 주로 대형오징어, 장어 등을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에 수출 중에 있다.

페루에서는 택시의 절반 가까이가 대우의 티코 일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페루에서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수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섬유, 전자제품, 보안장비, 중장비, 무역,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가 투자한 상황이다.

페루 경제부 투자국(Proinversion)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 페루에 투자한 100 대 기업 중 SK 가 18.75 백만불로 29 위에 랭크 되어 있으며 LG 전자가 5.38 백만불로 51 위에 포진되어 있다. SK 는 페루 최대 가스유전인 Camisea 에 투자 진출한 상황이며 LG 전자는 페루 가전제품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다.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페루는 남미대륙 중 태평양 방향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데, 남회귀선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도상으로는 열대와 아열대에 속하나 기후는 남극에서 북상하는 홀볼트 한류가 페루 해안을 따라 흐르고, 한쪽으로는 표고 5,000미터가 넘는 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등 변화가 큰 지형으로 인해 해안지대, 삼림지대, 산악지대 등 3지대에 따라 기후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 특징이다.

가. 해안지대 (COSTA)

전체 국토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해안지대(COSTA)의 기후는 열대이나 홀볼트 한류 때문에 비교적 온난한 사막형 건조기후이다. 하계(12-4월)에는 기온이 25도씨~35도씨를 나타 내면서 다소 덥고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며, 동계(5-9월)에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면서 (겨울에도 거의 10도씨 이하 내려가지 않음) 습도가 90-100%, 구름이 많으나 연중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해안지대의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기적으로 발생 하는 "엘니뇨(EL NINO)" 현상이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수도 리마를 비롯한 트루히초, 치클라요, 뻬우라, 따끄나 등이다.

나. 삼림지대 (SELVA)

전체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삼림지대(SELVA)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평균 28℃ 정도로 덥고 습도도 높다. 4월-10월에는 건기로서 기온은 35도씨까지 상승하며, 11월-4월은 고온 다습한 기간이며 때때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이끼또스, 뿌잘파 등이다.

다. 산악지대 (SIERRA)

전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SIERRA)의 기후는 우기(11-3월)와 건기(4-10월)로 나뉘어 지는데, 건기에는 낮에 따뜻하며 건조하고 기온은 20도-25도를 나타내며, 밤에는 추우면서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데 종종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기도 한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쿠스코, 뿌노 등이다.

한편, 우기에는 대부분 아침에는 건조하고 청명하나 오후에는 약간씩 비가 내리며 종종 호우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기에는 기온은 18도까지 떨어지는데 밤에도 15도 수준 정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도에 따라 온도차가 심하고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

라. 리마의 기후

수도인 리마의 기후는 해안지대 기후로 연중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0℃(하계 최고 30℃, 동계 최저 11℃) 정도이다. 동계(4월말-11월 중순)에는 안개가 뒤덮여 햇빛을 거의 볼 수 없고 습도가 높고 쌀쌀한 기후인 반면, 하계(12월-5월)에는 일조량이 많고 비교적 더운 날씨이나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심한 더위는 없는 편이다.

리마의 월 평균 기온

(단위 : 도씨)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5	26	26	24	21	19	17	17	17	19	20	23
최저	19	20	19	18	16	15	14	13	13	14	16	17

리마의 경우 여름(12월-4월)에는 하복 정장과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 된다. 가끔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등을 준비하면 무난하다.

겨울(5월-11월)에는 춘추복 또는 동복을 준비하면 된다. 가장 추운 날씨가 10도 내외이나, 바다 바람과 함께 습도가 높아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매우 쌀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웨터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페루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4시간으로 페루가 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느리다.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면 페루 시간으로 전일 오전 10시며, 한국시간 오전 10시면 페루시간으로 전일 오후 8시가 된다.

○ 한국시간 7월 7일 오전 0시 -> 페루 7월 6일 오전 10시

한국 (7월7일)	0	1	2	3	4	5	6	7	8	9	10	11
페루 (7월6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7월7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페루(7월6일)	22	23	24	7월 1	2	3	4	5	6	7	8	9

나. 근무시간

은행은 일반적으로 09:00부터 12:30까지 오전근무를 하며 15:00부터 18:00까지 오후 근무를 하나 창구에서는 중식시간에도 교대근무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들이 6월 30일과 12월 31일은 결산업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며 만약 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전후 첫 번째날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Jorge Chavez 국제공항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은행지점들은 1년 내내 24시간 영업한다.

정부기관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부터 11:30까지 근무하고, 기타 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2:30까지 오전 근무, 15:00부터 17:00 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근무시간은 바뀌는 경향이 많다.

한편 일반상점의 경우 상점규모 및 성격에 따라 09:00 또는 10:00부터 12:30까지 오전 근무를 하며, 15:00 또는 16:00부터 20:00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대도시의 슈퍼마켓은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며, 수도 리마의 일부 슈퍼마켓 및 일부 주유소와 붙어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또한 토요일은 회사 및 상점에 따라 근무하기도 하나, 일요일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서머타임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별로 전체 공공 민간부문에 시행하기도 하고, 공무원 들에만 적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3. 도량형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곡물단위에 깐딸 등을 사용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미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가정용 주택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60HZ, 220V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10V를 겸용으로 하여 전원이 들어와 있는 집도 있다. 산업지역, 대형건물, 전시장 등에는 380V 삼상 전원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주 : 페루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이 220V 이지만 플러그는 아직까지 일자형이 많아 전기 제품을 소지하는 출장자는 별도의 일자형 플러그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출입국/비자

가. 출입국

페루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가 가능하다. 현지 비즈니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는 상용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상용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실행이 아닌 바이어와의 상담 등 시장개척 목적의 경우, 상용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통관 절차상 편리한 점이 많다.

출입국 절차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와 세관의 물품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내구성 고가품을 제외하고는 휴대품 통관은 자유로우며, 일상 소지품 외에 휴대용 악기, 휴대용 타자기, 사진기, 휴대용 전자계산기, 전기 면도기 및 드라이기 등은 각 1대씩과 담배 20갑, 주류 2리터까지 면세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체류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목적 혹은 선물용으로 미\$ 300까지의 물품도 면세반입이 허용되는데 단, 각 물품 1점당 미\$ 100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상업용 견본품인 경우 반입 후 페루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반입이 허용되나 일정 가격이 상인 경우는 허용이 안되고 있다. 비즈니스 출장 시 견본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완벽한 외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세관의 검사대상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즉, 제품의 원래 박스를 통째로 반입하는 것은 세관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가방 등에 넣거나 원래 박스를 해체하여 분해하여 반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도착 시에 물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자신이 버튼을 눌러 파란불이 들어오면 무사 통과, 빨간불이 들어오면 예외 없이 샅샅이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의 대책이 없다.

페루는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지이기 때문에 마약의 반출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출국 시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를 하여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공항에서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국 시 공항세는 28.3불로 타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며 참고로 페루 내 국내선으로 여행 시도 공항세를 현지화로 5.3불이며 종전에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 공항 세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9. 11일에 발생한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사건 이후 공항 출국 수속 장에는 비행기표와 여권 소지자만이 입장이 되도록 엄격히 통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 탑승수속 시 휴대화물도 검색이 강화되어 종전에는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하물, 심지어는 개인 신변용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나. 비자

○ 비자 발급처(주한 페루대사관)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5번지 5호
- 전화: 757-1735~7
- 팩스: 757-1738
- 휴일: 토, 일요일
- 비자신청: 09:00 - 12:00
- 비자발급: 14:00 - 17:00
- 소요시간: 2-3일
- 소요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 페루 대사관에 직접 문의 요망

5. 환율/환전

가. 환 율

1) 화폐 단위

페루의 화폐단위는 누에보 솔(NUEVO SOL)이며, 단위는 S/. 로 표기하는데 솔 아래 단위는 미 달러화의 센트와 같은 센티모를 쓰고 있다. 한편, 페루에서는 자국 화폐인 솔과 미국 달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내구재의 가격은 대부분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현재 유통중인 지폐는 200솔, 100솔, 50솔, 20솔, 10솔 등 5종이 있으며, 주화는 5솔, 2솔, 1솔, 50센티모, 20센티모, 10센티모, 5센티모, 2센티모, 1센티모 등이 있다.

2) 환율

현지화의 대미달러 평균환율은 98년에는 1\$=S/2.94, 연간 평가 절하율은 15.4%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99년도에는 1\$당 S/3.38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다. 2000년 1\$당 S/3.49, 2001년 S/3.44, 2002년 S/3.49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환율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8월 환율은 S/3.25 수준이다.

나. 환 전

환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어 은행, 호텔, 거리 환전상, 환전소 등에서 자유로이 환전이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대체로 낮은 환율이 적용되나 큰 차이는 없다. 단기 여행시에는 호텔에서 투숙객에게는 우대환율을 적용해주는 호텔이 많으므로 소액은 호텔 내 데스크에서 환전해 쓰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페루는 달러화를 공용으로 쓰고 있으며, 거리의 현금 자동인출기 및 대부분의 슈퍼마켓, 백화점, 심지어 거리의 행상에 이르기까지 달러로 인출 및 통용이 되고 있으며 단기 체류자의 경우 소액 달러 지폐를 갖고 있으면 현지화 환전 없이도 거의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다.

환전 시 주의사항으로 가급적 무허가 환전상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들은 은행이나 환전소보다 약간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현지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행하는 외국인의 경우, 위조화폐 등의 감식 능력이 떨어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출장자들은 호텔 내,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페루를 비롯한 대부분 중남미에서는 여행자 수표는 위조가 많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거리의 환전소에서는 환전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므로 은행에서 환전해야 하는데 2-3% 정도의 환가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중남미 여행시는 불편하더라도 미국 체류 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일정 소요 현금을 지참하고 여행하거나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한 호텔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 물가정보

□ 도시: 리마(페루)			환율 : US\$1 = Sol3.32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200	7.1	구두(1켤레, 소가족)	120
1.2	넥타이(1개, 실크100%)	35	7.2	치약(150g, 1개)	2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0	7.3	칫솔(1개)	3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	7.4	면도기(1세트)	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50	7.5	건전지(1세트, 1.5V AA)	1.7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1.6
1.7	청바지(Levi's)	40	7.7	비누(1개)	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3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6	8.2	볼펜(12개)	10
2.3	닭고기(1KG, 생닭)	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5
2.4	쌀(1KG, Short Grain)	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6
2.5	밀가루(1KG)	1.5	8.5	휴대폰(범용형)	70
2.6	설탕(1KG, 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50
2.7	계란(10개)	1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10
2.8	감자(1KG, 현지산)	1.5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6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3.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0,000
3.1	고추장(1Kg)	15	9.2	엔진오일(1L)	1.2
3.2	된장(1Kg)	11	9.3	휘발유(1L)	1.5
3.3	라면(1개)	1.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70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11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00
3.5	불고기(1인분, 200g)	15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2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12	10.2	시내버스(1구간)	0.7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2
4.1	햄버거(1개)	3.5	10.4	택시(추가요금/Km)	0.5
4.2	피자(1판)	1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8	11.1	전화 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0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5
4.5	담배(수입산, 1갑)	1.5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3
4.6	위스키(1병, 750ml)	35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3
4.7	커피(1병, 175g)	10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6.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8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1,6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5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8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2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2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00			
6.2	VTR(6헤드, 범용)	14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20			
6.4	전자레인지	18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8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800			

□ 도시: 리마(페루)			- 환율 : US\$1 = So13.32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5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7,0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2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9%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8,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3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1,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1,000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60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0,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36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700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3,2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6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5			
14.4	치과(스켈링, 1회)	3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 유력지)	30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5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8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0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0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0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5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2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350			

7. 교통/통신

가. 교 통

1) 항공편

페루는 지리적으로 태평양 연안 남미국의 중간지점으로 항공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편은 증횡으로 편리한 편이다.

페루에 기착하는 항공편은 대부분 미국(L.A., Miami, New York)을 경유하여 리마로 연결되고 있으며, 주요 항공편은 Lan Chile(칠레), American Airline, Continental(미국), Air Canada(캐나다), Aerolinea Argentina(아르헨티나), Varig(브라질) TACA등이 리마에 기착하고 있다.

한편 페루 항공사인 Aeroperu는 1999년 3월 파산하여 현재 페루 국적의 항공사는 Aerocontiente 사가 근근히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까지의 여행시간은 서울-L.A. 구간이 약 11시간, L.A.- 리마 구간이 약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리마 국제공항은 2001년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에 30년 양허 조건으로 민영화되어 보수 확장공사가 완료 되어 남미의 주요 허브공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마 Jorge Chavez 국제 공항은 2005년 상반기 영국 컨설팅 회사인 스카이 트랙스가 실시한 '월드 베스트 공항' 설문 조사에서 남미 최고 국제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국내항공

페루가 비교적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항공 망도 잘 발달되어 있어 지방여행에 불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각 지역간의 연결망은 극히 부진한 편이다. 즉,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수도인 리마에서 출발한다. 2005년 이후 유가상승으로 항공료 또한 인상되어 대략 국내선 왕복에 \$200-250 수준이며 요금은 시즌별로 다소 상이한 편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3) 선편

선편은 월 2회 Callao-Pusan 정기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비정기선편이 간혹 운항되고 있다. 부산에서 리마 까야오 항구까지의 운항기일은 약 35-40일 정도가 소요되며, 40"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은 약 \$4,500 수준이다.

4) 택시

페루는 아직 택시미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자와 가격협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택시영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 유리에 "TAXI"라는 스티커를 한장만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노란색으로 차량 위에 택시표시를 한 차량은 정식으로 택시 영업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이다. 외국인은 특히 밤중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식 영업등록 택시나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봉변을 막는 방법이 된다.

택시 요금은 최소 3솔(약 미화 85센트) 정도는 주어야 하며 거리에 따라 흥정하기에 달려 있으나 리마 시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3-10솔 정도가 소요된다. 공항에서 시내 도심(호텔)까지 이용하는 경우 공항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다소 비싸 약 20볼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택시의 경우 약 30솔 정도를 주면 무난하다. 반면에 새벽이나 저녁에 공항으로 나가야 할 경우는 호텔 택시도 투숙 손님에게는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버스

버스는 마이크로 버스부터 대형 버스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대략 한번 탈 때 1솔에서 1.5솔 정도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경우에는 소매치기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 도시간에는 비교적 시외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여행을 하는 경우 잘 이용하면 운치가 있는 여행을 즐길겸 동시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6) 도로

페루는 총 연장 70,000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주를 연결하는 기간도로망은 15,075Km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간도로망은 전국을 동서 남북으로 횡단하고 있는데 하나는 북부 에콰도르 국경에서 남부 칠레국경까지 연결된 Panamericana 도로이고, 하나는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 및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르는 Carretera Central 이다.

페루의 지역별, 노면 별 도로설비 현황(KM)

지역별	구분	총연장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해안지역	국가기간도로	4,575	3,994	581
	주별기간도로	2,630	759	1,871
	인접도로	8,623	671	7,952
산악지역	국가기간도로	8,726	1,443	7,283
	주별기간도로	11,208	296	10,912
	인접도로	27,957	90	27,867
정글지역	국가기간도로	2,392	364	2,028
	주별기간도로	605	3	602
	인접도로	3,226	3	3,220
합계	국가기간도로	15,693	5,801	9,892
	주별기간도로	14,444	1,058	13,386
	인접도로	39,806	767	39,039

나. 통 신**1) 전화**

최근 5년 동안 전화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화비는 스페인계 전화회사인 Telefonica사의 독점으로 전화비는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 통신사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페루업체와 교신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 중 하나는 전화와 팩스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팩스로 전환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업체들이 많다. 팩스를 보내고자 할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Deme tono de fax"(데메 토노 데 팩스) 또는 "Tono de fax, Por favor(토노 데 팩스, 뽀르화보르)"라고 요청하면 된다.

2) 셀룰러폰

최근 들어 셀룰러폰의 보급률이 일반전화 보급률을 앞질러 연간 10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및 사용료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셀룰러폰의 경우 주요 통신사는 Telefonica와 Claro가 쌍벽을 이루고 무선 라디오의 경우 Nextel 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페루에서 셀룰러폰을 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를 사서 충전 액만큼 사용하는 Pre-Pago 방식과 한국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는 Post-Pago 방식이 있다.

3) 우리나라와의 통화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분당 약 \$1.5불 수준이며 시간대에 관계없이 연결은 매우 좋은 편이다. 단,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는 일반가격의 약 3배 요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할 경우에는 "00"을 앞에 붙이고 한국코드 "82"와 지역 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즉 부산의 444-1234에 전화하고자 하면 "00-82-51-444-1234"로 다이얼 하면 된다.

한국에서 페루에 전화를 하려는 경우 국제전화 이용코드(001, 002, 008등) 다음에 페루 국가코드 "51", 지역코드(리마의 경우 "1") 다음에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페루 리마 무역관의 442-2834 번호로 전화할 경우 "001-51-1-442-2834"로 하면 된다.

4) 공중전화

페루 공중전화는 전화회사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2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Telefonica del Peru사가 가장 큰 회사이며, Telepoint가 후발 경쟁업체이다. 최근 들어 Telmex 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설치된 전화기 수는 낮은 편이다.

Telefonica del Peru사의 시내전화기는 카드, 동전 겸용이고(기본요금 50센티모, 약 200원 수준) Telepoint의 경우는 카드만 가능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기본 S./20 짜리 전화카드를 구입하여야 한다.

한편, 공중전화 중에는 카드식 전화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화박스 안에 명시되어 있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Telepoint나 Telefonica del Peru등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로 모이는 Miraflores 에서 아시아권 전용 통화권을 판매하는 등 국제 전화 사용 방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페루의 호텔요금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1일 \$250 내외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별 다섯개급 호텔의 할인요금은 \$120-170 정도 수준이다.

페루 리마 무역관에서는 시장개척단 및 세일즈 출장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 받는 호텔을 선정하여 요청 시에 예약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요금수준은 \$90 - \$130 정도이다.

한국의 출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호텔은 Marriot, Swissotel, El Pardo, Sheraton Lima, Las Americas, Hotel Los Delfines, Holyday INN 호텔 등이다.

Marriot 호텔은 2000년도말에 개업한 호텔로 해변에 위치하여 풍광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요금이 비싸고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바이어들이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단점이다.

Swissotel 호텔은 신흥 상업지역(San Isidro)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로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이며, 각종 국제회의와 정부 주최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호텔로 유명하다.

또한 근처의 Hotel Los Delfines도 일류 호텔이며, 호텔이름에 걸 맞게 호텔 내 풀에 돌고래를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호텔의 숙박요금은 \$230-245 수준이며, 무역관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예약을 할 경우도 세금 및 조식 포함 \$120 내외 수준이 된다.

El Pardo 호텔, Las Americas 호텔 그리고 Holiday INN 호텔은 신형 상업중심지이며 관광지인 Miraflores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손 꼽히고 있으며 바다에서 가까워 걸어서도 바다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변이 번잡하고 주차장 시설이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요금은 무역관이 예약 시 El Pardo 호텔은 조식, 세금 포함 105불, Las Americas 호텔은 조식, 세금포함 90불, Holiday INN 호텔은 70불 정도 수준 이다.

Sheraton 호텔은 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등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나, 오래된 호텔로 청결도가 조금 떨어지고 주변 공기 오염도가 높은 편이며, 호텔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은 빈민 지역으로 좀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야간에 출입 시는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관에서 예약 시 요금은 세금 및 조식 포함 110불 정도이다.

장기 투숙자를 위한 아파트형 호텔로는 San Isidro 에 위치한 Plaza del Bosque 아파트 호텔이 적당한데 무역관에서 예약 시 세금 및 조식 포함 110불 정도로 4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며 작은 주방이 딸려 있어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관광 진흥법에 의거 체크인시 여권사본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관은 이중 Swissotel Hotel, El Pardo Hotel, Las Americas Hotel, Holiday Inn을 주로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무역관으로 요청하면 된다.

○ SWISSOTEL

- 주소 : Via Central 150, Centro Empresarial Camino Real,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21-9888
- 팩스 : (51-1) 421-4360
- Home Page : www.swissotel.com

○ Marriot Hotel

- 주소 : Malecon de la Reserva 61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17-7000
- 팩스 : (51-1) 217-7002
- Home Page : www.marriott.com/default.mi

○ Sheraton Lima Hotel y Casino

- 주소 : Av. Paseo de la Republica 170, Cercado, Lima, Peru
- 전화 : (51-1) 315-5000
- 팩스 : (51-1) 315-5015
- Home Page : www.sheraton.com.pe

- HOTEL EL PARDO
 - 주소 : Jr. Independencia 141,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617-1000
 - 팩스 : (51-1) 444-1185
 - Home Page : www.doubletreeelpardo.com.pe
- Hoteles Las Americas
 - 주소 : Av. Benavides 41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41-2820
 - 팩스 : (51-1) 444-1137
 - Home Page : www.hoteleslasamericas.com
- Holiday Inn Select
 - 주소 : Av. Benavies 300,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42-3200
 - 팩스 : (51-1) 610-0707
 - Home Page : www.hiselect.com
- Delfines Hotel & Casino
 - 주소 : Calle Los Eucaliptos 55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215-7000
 - 팩스 : (51-1) 215-7071
 - Home Page : www.losdelfineshotel.com.pe
- Plaza del Bosque
 - 주소 : Av. Paz Soldan 1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41-8818
 - 팩스 : (51-1) 421-8582
 - Home page : www.plazadelbosque.com

나. 식 당

한국에 리마를 방문할 경우에는 현지음식(양식), CHIFA라는 간판이 걸린 중국식, 몇 군데의 일식집 등 시내 곳곳에 식당이 분포되어 있어 식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현지 음식은 스테이크 등 기존의 전통적 양식에 CEBICHE(생선 등을 레몬즙에 어울린 것), PISCO SOUR(포도를 발효시킨 전통주)등 독특한 페루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는 바닷가에 위치하며 해물요리의 다양성으로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한 COSTA VERDE가 최고급 식당이며, Muelle Uno, Rosa Nautica, Astrid & Gaston, Asia de Cuba 등도 유명한 식당 중 하나이다.

한편 현지음식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거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CHIFA 간판을 찾아 중국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식의 경우에도 호텔 등에 문의 시 쉽게 가까운 일식당 주소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식당은 신흥상업 지구인 Miraflores에 집중되어 있고 음식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또한, 한국 식당과 한국 슈퍼에서 김치, 쌀, 라면 등도 구입할 수 있다.

- 고려정 (순수 한국식당)
 - 주소 : Av. La Paz 68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444-2890
 - 참고 : 하숙집 겸함, 1일 1인당 30불이며 식사 및 세탁 포함
- 노다지 식당(순수 한국식당)
 - 주소 : Av. Aviacion 3257,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476-0093
- 친니친니(한국식 중화요리집)
 - 주소 : Av. Fray Luis de Leon 484,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224-7087
- 아리랑 (순수 한국식당)
 - 주소 : Av. Salaverry 3261,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264-1609

다. 현지 음식

- 세비체(Cebiche)
 - 신선한 흰살 생선에 레몬즙, 양파, 야채, 샐러드유, 향신료 등을 곁들인 페루의 대표적인 요리
- 안띠꾸초(Anticucho)
 - 소(또는 닭)의 염통을 납작하게 썰어 꼬치에 끼워 구운 요리
- 뽀스꼬 사우어(Pisco Sour)
 - 포도로 만든 술 뽀스꼬에 계란 흰자, 가무시로, 레몬즙 등을 각 식당의 독특한 비율로 칵테일 한 주류
- 치차모라다(Chicah Morada)
 - 보라색 옥수수를 삶아 파인애플 등을 넣어 만든 음료
- 산꼬차도(Sancochado)
 - 고기, 옥수수, 호박, 양파, 감자 등이 들어간 야채 수프

9. 관공서 관행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적으로 이권부서 관료들은 태만하고 부패된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행정 및 인가절차가 정해진 기간보다 지체되는 것이 보통이며, 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인사를 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1990년도에 전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 집권 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부정 부패와 공무원들이 퇴근 후 부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이 퇴근 후 야간에 민간 경비용역회사에서 일하거나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되고 있고 교통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외국인은 20~30솔, 현지인은 10솔을 주고 해결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단, 최근 들어 증원되고 있는 여자 교통경찰관에게는 잘못 뇌물을 건네다 걸리면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관공서를 방문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공식적인 면담 시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당사자 본인을 위한 면담이라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처리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도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약속된 면담이라도 무한정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하루 전쯤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0. 공휴일

페루는 공식 휴일 이외에 정부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의 휴일이 별도로 있으며, 간혹 현지 관광진흥을 위하여 공식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도 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월요일이 공휴일의 중간에 끼일 경우도 연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휴일명	날짜
신년(Año Nuevo)	1/1
부활절(Semana Santa)	4/13~ 4/15(2006년도 경우)
노동절(Día del Trabajo)	5/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날 (SAN PEDRO Y SAN PABLO)	6/29
독립기념일(Fiestas Patrias)	7/28 ~ 7/29
성녀 ROSE의 날(Santa Rosa de Lima)	8/30
앙가모스 전투 기념일(Combate de Angamos)	10/8
성자의 날(Todos los Santos)	11/1
성모의 날(Immaculada Concepcion)	12/8
성탄절(Navidad)	12/25

주 : 여타 공휴일은 고정되어 있으나 부활절 휴가기간은 카톨릭 월력에 따라 매년 변동이 되고 있음

11. 여행시 유의사항

상비약은 리마 에서도 곳곳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사용하던 약들은 미리 휴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지사제인 정로환, 진통제, 간단한 감기약 등은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 관광지인 CUSCO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물파스도 준비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산병(Soroche) 대비약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데 효과도 좋고 개당 1불 미만으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리마의 경우 여름(12월-5월)에는 하복 정장과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 된다. 가끔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등을 준비하면 무난하다.

겨울(6월-11월)에는 춘추복 또는 동복을 준비하면 된다. 가장 추운 날씨가 10도 정도이나, 바다 바람과 함께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매우 쌀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웨터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미 최대 관광지인 CUZCO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고산 지대이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좀더 두꺼운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페루의 경우 호텔에서 냉방은 되나 난방 시설은 없기 때문에 유념하기 바란다.

1992년 페루의 양대 테러단체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 일명 "빛나는 길") 및 뚜팍아마루 혁명운동(MRTA)의 리더가 체포된 이후 테러 단체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현재는 일부 잔존 세력이 정글지역에서 활동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테러조직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및 실업난 등으로 민생범죄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도, 절도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출 시는 고가 소지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특히 야간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시장은 완전자유화로 외화의 보유, 송금, 환전 등이 자유로우며, 달러화의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액 달러화 보유 시에는 현지화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환전 필요성이 없음) 달러화 소지 및 이용이 빈번한 만큼 위조지폐(특히, 고액권 달러)도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 달러화

- 가운데 인물 그림이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울룩불룩하게 굴곡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면 진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현지화

- 밝은 쪽을 향해 지폐를 펴서 보았을 때 지폐상에 있는 인물사진 한 쪽 여백에 투영되어 비쳐지는 경우 진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단, 위조 지폐에도 투영인물 사진을 손으로 그려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밝은 쪽으로 비추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폐에 인물사진이 희미하고 조악하게 보이면 위조지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급적 거리에서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노점 환전상의 경우 위조지폐 및 계산기 조작에 의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바이다.

'91년도에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이중 천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고 아직도 여름철에는 연례적으로 콜레라환자가 소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고급식당에서 익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돗물의 경우에는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때로는 아메바성 장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식수로 부적합하며, 판매용 광천수(Agua Mineral)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사람들은 주로 Agua Mineral Sin Gas(아구아 미네랄 신가스)를 주로 찾고 있으며 탄산이 첨가된 미네랄 워터는 Con Gas(콘가스)라고 한다.

시내 도처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CLINICA)이 소재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911 제도를 본뜬 116 비상구급 전화번호 제도를 갖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서비스의 질은 낮으며, 비상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잦은 실정이다. 페루에서 가장 기민한 기동력을 갖춘 기관은 소방서와 자원경찰대 (Serenazgo)로서 이들 기관에 연락,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현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구급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응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환자 등은 보험형태로 비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현지의 도로설계는 나름대로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급격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이며, 대형버스에서부터 봉고 스타일의 소형 버스에 이르기까지 형태 구분이 없으며 버스에 부착된 행선지명과 노선번호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잦은 노선 변경으로 승차 전 반드시 물어보고 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외국관광객의 이용에는 도난 등 위험이 많아 적합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택시으로써 택시 이용 시 주의사항은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타기 전에 거리에 따라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출 시 사전에 목적지까지의 택시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요금은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호텔에서 승차하는 경우 호텔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시내에서 탈 경우 교통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가지도 쓰지 않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권유 한다.

시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리에 따라 미\$ 1-3 정도면 적당하며 리마의 국제공항인 호르헤차베스 공항에서 리마 중심까지(미라플로레스 혹은 산이시드로)는 약30Km 정도인데, 공항에서 시내로의 교통편은 외국인인 경우 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택시요금은 공항전용 택시(검은색)는 미\$15-20 정도이며, 일반택시는 미\$5-10 정도이다.

개인적인 방문이나 시장개척단 등 단체 방문 시 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비행기를 다시 타야 할 경우 외에는 여권은 항상 호텔 내 여행용 가방에 보관시키고 여권 사본을 하여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핸드백에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여 다음 여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페루의 경우 환전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굳이 신분증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특히, 페루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여권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특히 한국여권은 위조가 용이하고(예컨대, 사진을 디지털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붙이는 제작방법 등) 인종도 인디오 혼혈계통과 유사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여권 중 하나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대사관

- 주소 : Av. Principal 190, Piso 9, Urb. Santa Catalina, La Victoria, Lima, Peru
- 전화 : (51-1) 476-0815, 476-0861
- 팩스 : (51-1) 476-0950
- e-mail : koremb-pu@mofat.go.kr

나. 무역관

- 주소 : Av. Canaval y Moreyra 452, Piso 9,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42-2834, 222-2760, 222-7006
- 팩스 : (51-1) 442-0841
- e-mail : kotrape@terra.com.pe

다. 한인회

- 주소 : Av. Aviacion 3199, piso 3,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225-3181
- 팩스 : (51-1) 225-3180

라. 현지 진출 한국기업

1)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

- 업종 : 원유개발 및 생산판매
- 전화 : (51-1) 222-4772
- 팩스 : (51-1) 222-5947
- 설립 연도 : 1996년

2) LG전자(LG Electronics Peru S.A.)

- 업종 : 가전제품 판매법인
- 전화 : (51-1) 440-4500
- 팩스 : (51-1) 421-0548
- 설립 연도 : 1997년 10월

3)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 업종 : 가정용 전자제품
- 전화 : (51-1) 221-4134/5
- 팩스 : (51-1) 221-4139
- 설립 연도 : 1996년 2월

4) Intra worldwide Peru S.A

- 대표자 : 박종은
- 업종 : 종합무역
- 전화 : (51-1) 242-7615
- 팩스 : (51-1) 444-6758
- e-mail : intraww@terra..com.pe
- 설립 연도 : 1999년

마. 현지 한인 여행사

1) 고려여행사

- 주소 : Av. La Paz 681,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444-8292
- 팩스 : (51-1) 446-5430
- e-mail : gokoryo@terra.com.pe

2) 리마 연합 여행사

- 주소 : Av. Jose Pardo 610, Mezanine 24,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41-4255/243-0527
- 팩스 : (51-1) 241-4255
- e-mail : hs_153@hotmail.com / hs_153@hanamil.net

바. 현지 경제단체

1) 리마 상의(Camara de Comercio de Lima)

- 주소 : Gregorio Escobedo 398, Jesus Maria, Lima, Peru
- 전화 : (51-1) 463-3434
- 팩스 : (51-1) 463-2820
- e-mail : webmaster@camaralima.org.pe
- Home Page : www.camaralima.org.pe

2) 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 주소 : Los Laureles 3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21-8830
- 팩스 : (51-1) 442-2573
- e-mail : webmaster@sni.org.pe
- Home Page : www.sni.org.pe

3) 전경련(CONFIEP)

- 주소 : Av. Victor Andres Belaunde 147, Edificio Real Tres, 0F.401,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22-3311
- 팩스 : (51-1) 422-1509
- e-mail : postmaster@confiep.org.pe
- Home Page : www.confiep.org.pe

4)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 ADEX)

- 주소 : Av. Javier Prado Este 2875,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346-2530
- 팩스 : (51-1) 346-1879
- e-mail : postmaster@adexperu.org.pe
- Home Page : www.adexperu.org.pe

사. 주요 정부부처

1) 교통 통신부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 주소 : Av. 28 de Julio 800, Cercado, Lima, Peru
- 전화 : (51-1) 433-7800/433-3790
- 팩스 : (51-1) 423-7705
- Home Page : www.mtc.gob.pe

2)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주소 : Av. Las Artes Sur 260,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475-2055
- 팩스 : (51-1) 475-0688
- e-mail : postmaster@mem.gob.pe
- Home Page : www.mem.gob.pe

3) 관세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SUNAT)

- 주소 : Av. Gamarra 680, Chucuito, Callao, Peru
- 전화 : (51-1) 469-0058
- 팩스 : (51-1) 465-0585
- Home Page : www.aduanet.gob.pe

13. 관광명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2박 3일 코스의 잉카유적지인 마추피추 및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해발 3800m의 고도인 CUSCO를 방문할 수 있으며, 아마존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IQUITOS,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4200m)에 위치한 TITICACA호수, 그리고 거대한 문양이 땅에 새겨져 있어서 경비행기를 타고서야 볼 수 있는 기원 후 1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NASCA 문명, 팡귀 서식처 중 남반구 한계선이라 하는 빠라까스 물개섬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uzco를 제외하고는 호텔 등 주변시설은 열악한 편이다.

특히 마추피추 관광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지역의 지반 붕괴로 2004년 하반기부터 일일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수기의 경우 1주일 전, 성수기의 경우 2주일 전에 쿠스코-마추피추행 왕복 열차 티켓을 구매 해야 한다. 그리고 리마-쿠스코는 일일 편도 8편 정도 운항이 되나 우기의 경우 잦은 기후 변화로 지연, 결항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간의 방문일 경우 리마 시내관광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통령 궁, 대성당 등이 위치한 Plaza de Armas 등 구 시가지와 잉카 유적 및 당시 금문화를 대변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 박물관(Museo de Oro) 및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문화인 Chimu 문명 등을 전시한 국립박물관(Museo de la Nacion)등 주요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간여유가 있을 경우는 리마 북부 600KM 북방의 트루히요시 인근의 찬찬 유적지나 1000KM가 떨어져 있는 까하마르카 지역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마존 강 줄기에 위치한 Loreto 주의 이키토스(Iquitos)시를 방문하여 정글 탐험도 가능하지만 당일 코스로는 적합하지 않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수출관련

페루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에 따른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전통 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구조의 재편을 위하여 비 전통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관세 환급증을 발행하며 세금 대납용이나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대납용 또는 주택기금 납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수입관련

페루 정부는 중고 기계류와 중고 자동차 등 각종 중고 제품 수입도 허용하고 있는데 중고 의류 및 중고 신발류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기타 환경오염 물질 및 화약류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물질은 수입 금지 되어있다.

또한 농업발전 기금 마련을 위하여 CIF 가격 기준 쌀(톤당 0~130달러), 설탕(톤당 0~157달러), 옥수수(톤당 0~51), 밀(톤당 0~100달러) 및 우유(톤당 0~1,362 달러)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고 기계류 수입 시에는 사용 연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산정하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도 30% 내외로 적용하고 있다.

페루에서 수입 통관 시 수입송장에 표시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통관서류가 미비한 경우, 덤핑 혐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선적지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란다.

다. 관세제도

페루에는 '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

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가 인하되었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200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던 것으로 WTO 협정 등의 준수를 위해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이 세금도 폐지되었다.

2006년 중순 기준 품목수(6998)을 기준으로 약 43% 정도가 12%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40% 정도가 4% 관세를, 15%가 2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기계류, 이발기 등 112개 품목은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는 19%이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페루는 후지모리 정부가 들어선 '90년 7월 이후 과거 정부의 수입 금지 및 규제 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 허가서 발급 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폴레도 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안데안 회원국산 상품의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도 수입 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국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의 수출입을 행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다. 단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식 음료 제품: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 지도 및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 전쟁 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화학 원료
-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 식물,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반제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 일자, 수입 물품 포장 별 내용물 및 유효 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 번호 등을 신고 해야 하며, 세계 보건 기구 품질 보증 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동 물품이 자유로운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나. 수입쿼터

페루는 아직까지 동 규제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의 저가 제품 대량 수입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하여 지난 2004 년 10 월 14 일부터 2005 년 5 월 4 일까지 섬유류에 한하여 일시적인 세이프 가드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5 년 5 월 4 일을 기점으로 완전 철회 되었으나 아직도 섬유류 수입시 과도한 언더밸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섬유류 36 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가격을 선정해 높은 뒤 수입되는 품목가격이 그 이하일 경우 미리 책정된 최소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을 1 불에 수입했는데 정부에서 책정한 최소 가격이 3 불이라면 인보이스 가격과 상관없이 3 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동 조치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지만 현재 페루로 수입되는 동일한 섬유류의 가격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에 비해서 60% 가량이나 낮은 점을 미루어 이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17. 관세제도

페루에는 '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가 인하되었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200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던 것으로 WTO 협정 등의 준수를 위해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이 세금도 폐지하게 됐다.

2006년 중순 기준 품목수(6998)을 기준으로 약 43% 정도가 12%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40% 정도가 4% 관세를, 15%가 20%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기계류, 이발기 등 112개 품목은 면제 대상이다.

동 조치에 포함된 458개 품목 중 19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일률적으로 4%로, 227개 품목에 대해서는 12%로 인하했으며, 이들 중 관세 외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소비세(5%)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2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8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34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77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347개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재중에는 맥주, 포도주, 위스키 등 22개 품목이, 농업원자재중에는 설탕과 맥아(맥주 양조용), 포도즙 등이 5%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며, 종이와 상자류(2겹)의 경우는 수입 관세가 12%에서 4%로 8%나 인하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천연칼슘 인산염과 관개용 밸브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4%로 인하되었으며 가축과 산업용 밸브, 브레이크 등 기계 부품, 섬유산업용 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화이버, 나일론 인조사와 같은 품목의 수입관세 또한 4%로 조정됐다.

화강암과 같은 111개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됐으며 영구 불변하는 석고와 같은 제품을 제외한 대리석, 판석, 플라스틱 튜브 및 기타 건축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다. 또한 컴퓨터부품과 컴퓨터의 경우 수입관세가 7%에서 4%로 인하됐으며 원심 펌프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됐다. 특히 수송용 장비 부품 및 액세서리의 경우도 타이어를 포함해 27개 품목이나 관세 인하 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로 조정됐다.

안데안 회원국간 무관세교역 및 5, 10, 15, 20% 4단계 대외공동관세를 시행 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안데안역외 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는 양측 상품의 태평양 및 대서양 경제권 진출 교두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 등의 국가들과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완료되어 국회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CETICOS(자유산업지대)지역으로의 수입 시 관세율은 종전의 10%에서 8%로 인하)

페루의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 전 검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5천불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관세부과기준 가액은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 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통관시 전 품목에 대하여 19%의 부가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9%로 표현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며, 나머지 3%는 지방정부 재정목적의 지방세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부과 기준액은 관세 부과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품목별 주요 특별소비세는 아래와 같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 (동일 기간 1회 연장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동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 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안데안 회원국인 페루는 '92년 동 기구의 일시 탈퇴를 선언한 이후 '97.4.11일부로 전격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공식적이 탈퇴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페루 정부의 안데안 그룹 탈퇴선언 이전까지 이루어진 페루의 회원국 복귀노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차적인 복귀노력으로서 페루는 개별회원국과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동 협정 내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다.

- 볼리비아 :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에콰도르 : 약 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 약 8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

2차적으로 페루는 여타 회원국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데안 자유무역지대 편입을 위해, '94년 안데안 대외공동관세 5% 품목군에 대해 회원국상품에 시장을 개방한 바 있으며 '95년 들어 10% 품목군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대에 편입하였다.

한편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 통합 연합(LAIA) 회원국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 - 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치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액과 실제가액간 관세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신고액과 실제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페루 정부의 자동차류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배경은 '96년, '98년 2차에 걸쳐 세수증대를 위해 수입 자동차류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을 큰 폭으로 인상해 왔으나, 세수 증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98년도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맞물려 오히려 자동차 수입이 래퍼곡선(Laffer Curve)를 그리며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당초 인상목적과는 달리 세수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중고차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을 가중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실업자만 증가되는 역효과 현상을 초래하자 그 동안 묵살해온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 페루는 CIF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 소비세를 매겨왔는데, 이번 조치로 자동차 수입가격은 약 15.38% 정도의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일반 소비자 가격도 최소 6-8% 정도의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2000년 9월부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생산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에 한하도록 제한 조치를 취하여 2006년도의 경우 2001년도 연식부터 페루에 반입이 가능하다.

페루 정부는 국내 경기진작 및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완화 지원 차원에서 금년 들어 2차에 걸쳐 HS 6단위 기준 1,390개 품목의 공업용 원자재류에 대하여 종전의 12% 관세율을 4%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 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업계는 연간 약 4천만 불 상당의 간접 자금지원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페루는 2004년 초부터 안데안 공동관세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2006년 들어 베네수엘라의 안데안 공동체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안데안 공동체 자체가 점차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페루의 관세율 변화내역(2005. 10. 14)

관세율(%) (종가세+특별소비세)	해당관세 적용품목 비율(%)	
	조정후	조정전
0	1.60	1.60
4	39.88	37.22
7		1.74
9		0.01
12	42.46	43.32
17	0.69	0.69
20	10.85	10.90
25	4.52	4.52
총 계	100.00	100.00

분야별 수입관세 조정품목

분 류	관세인하내역 및 품목수(관세 · 특별소비세 포함)					품목수
	3%인하	5%인하	8%인하	16%인하	동일	
1. 소비재		29	5			34
(내구소비재)			4			4
가정용 기계 등			1			1
개인용 장식품 등			3			3
(비내구소비재)		29				30
음료		22				22
기타 소비재			1			1
가공식품		7				7
2. 자본재	45	220	75	0	7	347
(농업용)	4	9				13
기계 및 공구	1	6				7
견인 및 운송장비	2					2
기타 농업용 장비	1	3				4
(산업용)	23	93	16		1	133
공 구		7				7
산업용 기계	8	53	13		1	75
사무용 기계 및 기구	9	4	1			14
기타 고정장비	6	17	2			25
산업용 기계 부품		12				12
(수송장비)	11	27	10			48
수송용 고정장비		3				3
수송용 장비 바퀴	6	6	6			18
수송용 장비 부품	5	18	4			27
(건축용 자재)	7	91	49		6	153
가공제품	7	64	36		4	111
천연원자재		2	10		1	13
반가공 제품		25	3		1	29
3. 원자재 및 생산중간재		10	63	3	1	77
(가공원료용)			1			1

(산업용)		10	57	3	1	71
식품 원료		3				3
반가공 식품 원료		7				7
광산품			36	3	1	40
비식품			11			11
의약용 화학용품			10			10
(농업용 기타 원자재)			5			5
가공품			3			3
비 가공품			2			2
총 계	45	259	143	3	8	458

자료원: 페루 관보 D.S.No 150-2005-EF

18. 주요인증제도

2004년 2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에 속한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은 ISO 9001 인증서 2000년 버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까야오 항과 호르헤 차베즈 공항 또한 동 인증서에서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19. 지적재산권

페루는 그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 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관련 법적 제도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페루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소비자 보호청((INDECOPI)이며 3개의 부서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기능과 기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 동 기관의 부서별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Office of Distinctive Symbols : 상표, 상호, 의장권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o of Inventions and New Technologies : 발명품, 신기술의 등록 및 보호 업무 수행
- Office of Copyright :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수행

상기 부서중 지적재산권의 보호업무는 Office of Copyright 에서 수행되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INDECOPI내의 Court for the Protection of Free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에서 우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로 효력이 발효된다.

□ INDECOPi 연락처

- 주소 : Calle de la Prosa 138,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224-7800
- 팩스 : (51-1) 224-0348
- 이메일 : fzabala@indecopi.gob.pe
- Home Page : www.indecopi.gob.pe

20. 소비자보호제도

페루는 소비자 보호법(decreet No.716)에 의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로 동 기관 내 소비자보호 위원회(Comision de Proteccional Consumidor)에서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호, 상품정보표기, 위해성 표기, 소비자 현혹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동 기관의 소비자보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향후 동 기관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INDECOPi 연락처
 - 주소 : Calle de la Prosa 138,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224-7800
 - 팩스 : (51-1) 224-0348
 - 이메일 : fzabala@indecopi.gob.pe
 - Home Page : www.indecopi.gob.pe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페루 내 교역관련 국가기관과 유관기관은 페루 관세청(SUNAT), 리마 상공 회의소(CCL), 수출협회(ADEX), 수출진흥공단(PROMPEX), 무역협회(COMEX), 산업협회(SNI) 등이 있다.

- 관세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SUNAT)
 - 주소 : Av. Gamarra 680, Chucuito, Callao, Peru
 - 전화 : (51-1) 469-0058
 - 팩스 : (51-1) 465-0585
 - Home Page : www.aduanet.gob.pe
- 리마 상공 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ima)
 - 주소 : Gregorio Escobedo 398, Jesus Maria, Lima, Peru
 - 전화 : (51-1) 463-3434
 - 팩스 : (51-1) 463-2820
 - e-mail : webmaster@camaralima.org.pe
 - Home Page : www.camaralima.org.pe

-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ADEX)
 - 주소 : Av. Javier Prado Este 2875,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346-2530
 - 팩스 : (51-1) 346-1879
 - e-mail : postmaster@adexperu.org.pe
 - Home Page : www.adexperu.org.pe
- 수출진흥공단(Comision para la Promocion de Exportacion)
 - 주소 : Av. Republica de Panama 3647,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222-1222
 - 팩스 : (51-1) 221-3220
 - e-mail : sae@prompex.gob.pe
 - Home Page : www.prompex.gob.pe
- 무역협회(COMEX)
 - 주소 : Bartolome Herrera 254,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422-5784
 - 팩스 : (51-1) 422-5942
 - e-mail : comexperu@comexperu.org.pe
 - Home Page : www.comexperu.org.pe
- 산업협회(SNI)
 - 주소 : Los Laureles 3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616-4410
 - 팩스 : (51-1) 616-4444
 - e-mail : sni@sni.org.pe
 - Home Page : www.sni.org.pe

22.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1) 소량·다품종 주문시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소량다품종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어 한국의 최소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페루시장 개척 시 한국의 최소주문량 수준을 현지에 맞게 탄력적인 수용이 요구 되어진다.

2) 높은 수입의존도

페루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업체도 수입품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수입업체로 전환하는 등 수입시장은 지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3) 단순한 유통구조

매년 수입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통구조도 단순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페루와 같이 협소한 개도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입상에서 곧바로 최종 소비자 판매점인 2단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상이 도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나. 대금 결제 조건

1) 외상거래 일반화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할 정도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외상거래 제의를 무조건 배격하기보다는 바이어 신용, 규모, 신뢰성 등을 감안하고 거래를 몇 차례 경험해 본 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바 외상 거래 전 신중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 높은 금융비용

페루 기업의 신용도가 낮고 과거부터 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장 (L/C) 금액의 90-120%를 담보로 요구하고 20-30%의 이자율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을 통한 거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첫 거래 시 참고사항

신용도가 떨어지는 바이어가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할 경우는 과감하게 배격을 하되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바이어가 외상거래를 요구할 경우 각 기업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외상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구하고 T/T 거래로 상호간 신뢰가 쌓인 이후에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시장개척 시 유용한 Tips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사람들은 서류로 인한 거래보다는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간적인 교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하다.

거래 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를 성약 시키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적극 대처할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 공문 발송 시 수록할 내용

바이어에게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공문 내용을 주의 깊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E-mail을 사용할 경우에도 팩스로도 사본을 재송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E-mail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대부분 첫 공문에 인사말, 회사소개서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어가 관심이 있는 경우 회신해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첫 공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짙다.

바이어는 수출업체로부터 부족한 내용의 첫 공문을 받고 추가 회신을 하기보다는 가격조건, 품목별 가격리스트 등 완벽한 정보 입수를 원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더라도 처음 공문에는 FOB, CIF 기준의 수출가격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리마의 상 관행

1) 상호 신뢰가 거래의 첫 조건

리마 바이어는 거래를 위해 무역회사보다는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업체와의 접촉을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초기단계에 소량주문의 형태를 취하면서 생산업체의 약속이행여부, 품질 준수여부 등 거래의 기본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2) 간단한 스페인어 회사소개서

설립년도, 회사규모, 직원수, 매출액, 현 거래처 등 기초적인 회사 소개서 정도를 스페인어로 작성할 경우 바이어와 상담성과가 배가 될 수 있다.

3) 거래조건 완화 필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At sight L/C거래가 바람직하지만 리마 관행상 D/A, D/P, T/T 거래가 보편적이므로 at sight L/C 거래만을 고집하여 거래 무산시키기보다는 바이어 신용도를 확인하여 현지 관행에 맞는 거래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바람직한 접촉방법

많은 한국업체들이 접촉방법의 미숙으로 거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바이어에게 제품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소개서, 제품카탈로그, 각종 거래조건, 제품설명서, 샘플 등 제품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한 후, 거래 희망여부를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리마 바이어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팩스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5) 조급함은 금물

리마인들은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반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1-2회 독촉 후 회신이 없는 경우는 'NO'로 단정해도 좋으며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각종 관련 협회지

- Camara de Comercio de Lima(리마상공회의소)
- Asociacion de Exportadores(ADEX, 수출진흥기관)
- 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SNI, 산업협회)

나. 기 타

- 페루 옐로우 페이지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관련 정부 기관

- 페루 관세청(SUNAT)
- www.sunat.gob.pe

나. 각종 관련 협회

- 리마 상공 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ima)
- www.camaralima.org.pe
-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 ADEX)
- www.adexperu.org.pe
- 수출진흥공단(Comision para la Promocion de Exportacion)
- www.prompex.gob.pe
- 무역협회(COMEX)
- www.comexperu.org.pe
- 산업협회(SNI)
- www.sni.org.pe

다. 기 타

-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BCRP, 페루 중앙 은행)
- www.bcrp.gob.pe
-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경제부)
- www.mef.gob.pe

-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 www.sbs.gob.pe

25. 상담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벼운 인사말의 일상화로 모임, 사무실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사를 교환하며, 일단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미소로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성들은 볼을 맞대는 가벼운 키스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악수를 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무난하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사무실 출입을 하는 경우 여성들이 먼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비켜주며 특정 모임에서 여성들을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페루 인들은 출퇴근은 물론이고 중식시간 중 잠시 사무실을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난 경우에도 언제나 서로간에 인사를 주고 받는다.

식사 또는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식사 중 말을 해야 할 경우는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모두 먹은 후 얘기를 꺼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타인이 보는 앞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매너로 인식되고 있다.

페루 인들에게 선호되는 선물로는 태극문양이 새겨진 부채를 비롯한 한국문화 및 전통을 나타내는 장식품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인삼차 등과 같은 인삼제품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열쇠고리, 지갑, 다이어리, 만년필, 시계, 메모수첩 등이 선물로서 무난하다.

페루 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건 간에 서로 대화, 토의하는 것을 즐기는데 특히 국내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얘기 거리가 가장 즐기는 주제중의 하나이며, 대화 상대방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마치 오래 사귀 친구처럼 받아 들이는 경향이 높다.

특히 비즈니스 모임 후에는 주점,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스포츠, 영화 등의 문화적인 분야나 상호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 가족관계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대화전개에 무난하다.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즐기며 20년간 페루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 현지에서 유명인사로 인식되어 있는 박만복씨가 한국인임을 이야기 하거나, CEBICHE (페루의 전통 수산물 음식) 또는 PISCO SOUR(포도를 원료로 한 전통 주류), 고대잉카문명의 유적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CUZCO 등을 소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평화협정체결, 국경분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가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인접국 에콰도르, 칠레 등과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으며 볼리비아와는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국보다는 한 수 아래인 나라로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대화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상대방의 결혼과 관련된 사생활, 보수문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연령 등 비교적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화제대상으로는 부적합한 내용들이 페루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다.

페루시장은 대량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 주문에 있어서 소량. 다품종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시장진출 초기에 1회에 대규모 주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남미 사람들의 기질상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간적 교류가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중남미 사람들의 기질상 거래 시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거래에 있어서 단기간에 예스나 노냐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피하여야 하며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정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26.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대부분 중남미국과 마찬가지로 페루는 중산층 형성이 미진한 시장으로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1회 주문량이 작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소 주문량을 제시 바라며, 바이어에 따라서는 시험주문(Test Order)을 해서 시장성을 타진한 후 본격적인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제 조건 관련하여 페루 바이어는 현지 은행의 까다로운 L/C개설 요건과 비용과다를 이유로 L/C 방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 바이어인 경우는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T/T와 같은 간편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나 안전성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양자가 안정적인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무역관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할 경우 바이어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분할 송금 비율은 거래 케이스별로 적절히 조정 가능)

- 계약시 총 금액의 30% 송금
- 물품 선적 후 총금액의 40% 송금: 무역관이 선적서류 수령, 바이어에게 도착 통보
- 무역관이 바이어의 잔금 30% 최종 지불 확인 후, 선적서류 양도

아니면 계약시 선금 50%, 무역관이 선적서류 인도시 50% 송금 방식도 소액 거래시 자주 통용되고 있다.

소량물품 안경테, 프린터 잉크 등과 같이 중량이 적은 물품은 특사우편(DHL, TNT, EMS, FEDEX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이어들에게 문의한 결과 현지 통관상 가장 용이한 것은 EMS라고 한다. 따라서 총 인보이스 가격이 \$2,000을 넘지 않는 경우 정식 통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할 선적이 가능하면 EMS를 사용하여 1주일 단위로 송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FOB 금액이 5천불을 상회하는 모든 수입상품은 화학제품 등 일부 공업용 원료 및 의약품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7. 통관절차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증명서, 선적 전 검사증명서,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안데안 회원국 및 LAIA 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제 서류 기재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류), 세금납부 영수증, 품질증명서(의약품 등의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등이 통관 시 필요 서류이다.

위와 같은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 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일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하여 전산 처리반에 전달하며, 전산 처리반에서는 동 자료를 전산입력,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여부를 점검하며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재 접수 시키도록 조치한다.

적격 서류만을 대상으로 처리순서인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 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하게 된다.

- 참고1 : 수입검사 제외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2 : 수입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세관
 - 1일 접수 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출력하고 이에 검사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물품창고에서 실물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여부 및 관세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 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확인서와 실제물품을 비교하여 관세산정 적합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관자체보유 관세평가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 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간의 검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세관통관에 총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세관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 - 12:30, 14:00 - 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권자는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 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97년 기준 1UIT=S/3,000 (US\$ 862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 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004년 8월1일부터 선적 전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페루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하여 통관을 위해서는 간혹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28. 운송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는 Cuzco 공항이 있다. 이중 Tacna 공항은 인근 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Jorge Chavez 국제공항의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단과의 양허 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간의 양허 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내부 보수공사 등이 완성되어 현재 남미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루의 국제항구로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고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Callao 항구가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이며 그 이외에 남쪽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과 북쪽으로는 Paíta, Chimbote 항이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29. 분쟁해결 절차

리마 상의에서는 1993년부터 분쟁해결기구 (Centro de Arbitraje)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페루 바이어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가. 페루 채권추심기관

- MULTIGESTION PERU S. A. C.
 - 주소 : Av. Aramburu 1005, piso 8, San Isidro, Lima
 - 전화 : (51-1) 222-5800
 - 팩스 : (51-1) 222-5800 anexo 259
 - e-mail : galegre@multigestion.com.pe/judithm@multigestion.com.pe
 - 홈페이지 : www.multigestion.es
 - 설립연도 : 2000
 - 대표 : Mr. Alvaro Domingo Hay
 - 담당자 : Mr. Gino Alegre (Cargo: Gerente del area de Cobranzas)
 - 참고사항 : 동사는 스페인계 회사로 현재 Telefonica사(통신사)와 같은 페루 대규모 기업들의 채권추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함
- SERVICIOS INTEGRALES DE CREDITO S. A. C. (SERVINCRE)
 - 주소 : Calle Leonardo Da Vinci 385, San Borja, Lima
 - 전화 : (51-1) 475-0267, 225-4693
 - 팩스 : (51-1) 225-1924
 - e-mail : asalin@servinacre.com/servinacre@millicom.com.pe
 - 홈페이지 : www.servinacre.com (en construcción)
 - 설립연도 : 1998
 - 대표 : Mr. Adan Salinas Rodriguez
 - 담당자 : Mr. Adan Salinas
 - 참고사항 : 현재 공공기관 및 사기업들을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함
- GENERAL COLLECTORS S. A. C
 - 주소 : Av. Javier Prado Este 2554, San Borja - Lima
 - 전화 : (51-1) 476-9519, 9929-9961
 - 팩스 : (51-1) 226-3359
 - e-mail : cfranco@cal.org.pe/gencolsac@yahoo.es
 - 설립연도 : 2005
 - 대표 : Mr. Carlos Franco de la Cuba
 - 담당자 : Mr. Carlos Franco de la Cuba
 - 참고사항 : 위에서 언급한 2개사에 비해 규모는 적은 편이나 동사에서도 채권추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함

나. 페루 로펌

- RODRIGO ELIAS & MEDRANO ABOGADOS S.C.R.L.
 - RANKING : 1위 (자료원 : Consultora britanica Practical Law Company PLC)
 - 주소 : Av. San Felipe 758, Jesús María, Lima
 - 전화 : (51-1) 619-1900
 - 팩스 : (51-1) 619-1919, 463-7300
 - EMAIL : postmaster@estudiorodrigo.com
 - 홈페이지 : www.estudiorodrigo.com
 - 설립연도 : 1965
 - 대표 : Dr. Alex Morris Guerinoni
- ESTUDIO ECHECOPAR GARCIA S.C.R.L.
 - RANKING: 2위 (자료원 : Consultora britanica Practical Law Company PLC)
 - 주소 : Av. de la Floresta 497, piso 5, San Borja, Lima
 - 전화 : (51-1) 372-7373
 - 팩스 : (51-1) 372-7171, 372-7374
 - EMAIL: estudio@echecopar.com.pe
 - 홈페이지 : www.echecopar.com.pe
 - 설립연도 : 1950
 - 대표 : Mr. Kenneth Olsen Martens
- ESTUDIO RUBIO LEGUIA NORMAND Y ASOCIADOS S.C.R.L.
 - RANKING: 3위 (자료원 : Consultora britanica Practical Law Company PLC)
 - 주소 : Av. Dos de Mayo 1321, San Isidro, Lima
 - 전화 : (51-1) 442-4900
 - 팩스 : (51-1) 442-3511
 - EMAIL: abogados@erubio.com.pe
 - 홈페이지 : www.erubio.com.pe
 - 설립연도 : 1980
 - 대표 : Mr. Fausto Viale Salazar
- MUÑIZ, FORSYTH, RAMIREZ, PEREZ-TAIMAN & LUNA-VICTORIA S.C.R.L.
 - RANKING: 4위 (자료원 : Consultora britanica Practical Law Company PLC)
 - 주소 : Calle Las Begonias 475, Piso 6, San Isidro, Lima
 - 전화 : (51-1) 611-7000
 - 팩스 : (51-1) 611-7030, 611-7010
 - 메일 : postmast@munizlaw.com.pe
 - 홈페이지 : www.munizlaw.com
 - 설립연도 : 1980
 - 대표 : Mr. Albert Forsyth Solarí

30. 유형별 분쟁사례

페루는 영세한 무역업자들이 많고 이들 회사들은 정부와의 세금문제 또는 공급업자와의 수출대금지급 문제로 수시로 상호가 바뀌기도 하고 회사 자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분쟁 사례로 우리나라의 C사와 페루의 S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페루의 S사는 우리나라의 C사로부터 미원을 3컨테이너 계약을 하고 1차 선적분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차 선적분이 S사의 예상과는 달리 판매가 부진하자 C사에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사장은 잠적하였다.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한 C사는 2차 선적분 및 3차 선적분을 계속해서 페루로 출항시켰고 2컨테이너 모두 세관에 압류당하게 되었다.

S사의 대금지불이 지연되자 C사에서는 다급한 마음에 수출대금지급을 재촉하였으나 사장은 모든 책임을 회피한 채 S사에 대한 소유권마저도 포기하고 현재 잠적 중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신용도, 규모와 경험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강행해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례로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수출대금 미지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페루와의 거래에서는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들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스페인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절반

페루는 주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편인데 현재 스페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뒤를 미국과 영국이 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전체 금액 중 65%를 통신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주로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국 가	2001	2002	2003	2004	2005
스페인	4,356.09	4,398.35	4,400.72	4,719.76	4,726.0
미국	1,954.21	1,818.58	1,855.64	2,041.97	2,262.3
영국	2,430.94	2,518.05	2,596.23	2,227.48	2,227.4
콜롬비아	79.05	478.61	849.19	849.23	849.5
네덜란드	1,077.97	1,095.79	1,163.41	1,154.10	779.2
파나마	552.38	564.41	597.32	601.15	602.8
칠레	577.36	609.90	591.67	492.48	490.5

멕시코	36.47	36.79	36.79	36.79	431.6
이탈리아	58.06	63.91	167.11	269.60	269.6
스위스	248.15	249.61	259.29	264.00	268.1
일본	98.63	102.13	102.15	102.15	228.2
우루과이	151.46	150.95	147.74	162.97	168.2
캐나다	160.39	60.40	160.40	160.45	160.8
중국	122.16	122.16	122.16	122.16	122.2
한국	20.69	28.22	39.29	44.82	44.8
기타	1,020.99	991.14	698.89	642.87	647.0
TOTAL	12,945.00	13,389.00	13,788.00	13,892.00	14,278.1

자료원: Proinversion

나. 통신업, 광업, 금융업 등에 외국인투자 활발

업종별로는 현재 통신분야가 35% 수준으로 외자유치가 가장 활발하였고 그 뒤를 광업과 금융, 제조업, 에너지 분야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 통신업계에는 스페인의 Telefonica와 멕시코의 America Movil 등이 투자를 하여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광물가격이 상승하자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앞 다투어 페루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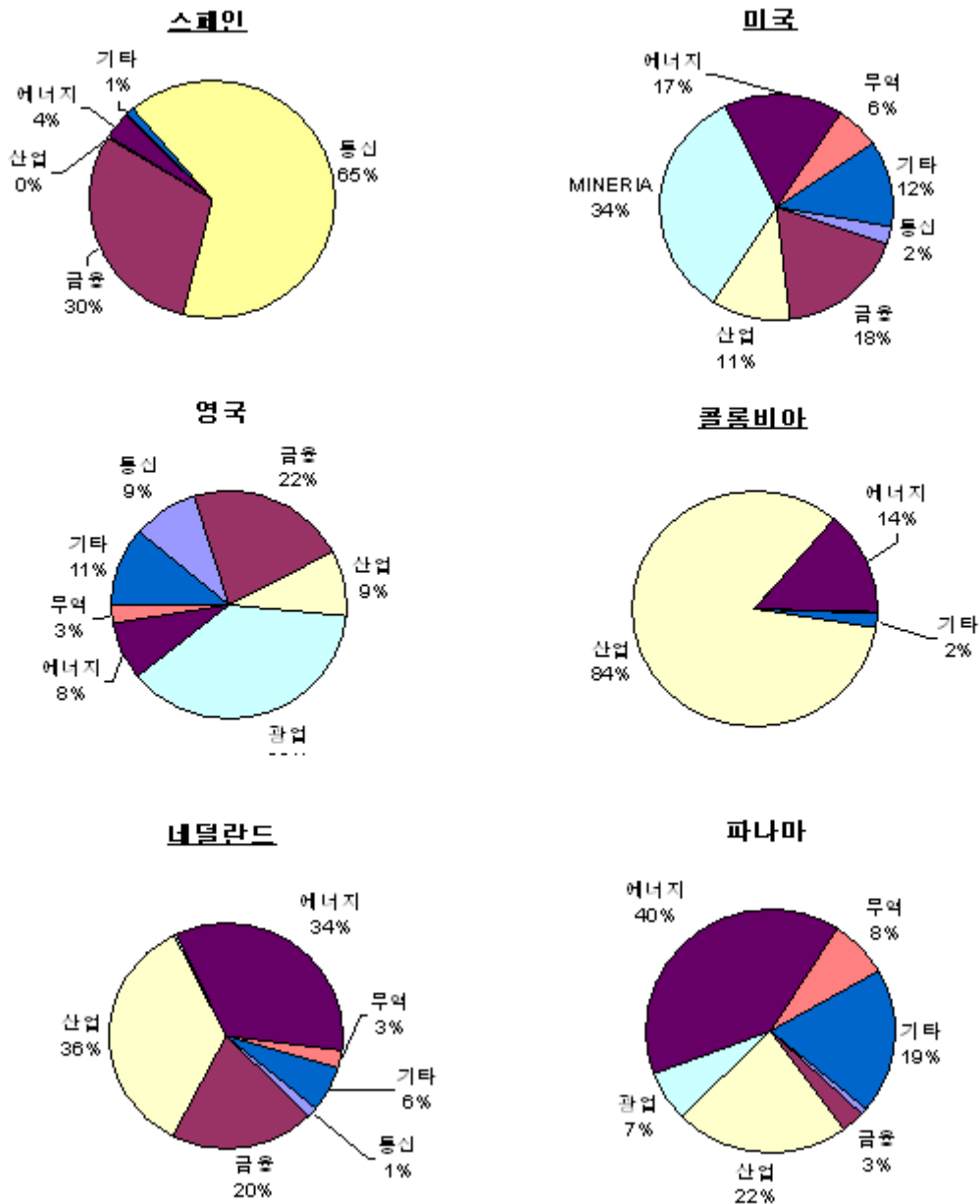
분 야	2001	2002	2003	2004	2005
농 업	44.40	44.40	44.40	44.40	44.40
무 역	640.22	638.60	617.00	631.92	632.63
통 신	4,601.53	4,903.99	4,932.12	4,953.22	4,953.24
건 설	70.63	70.63	80.63	81.50	81.50
에너지	1,599.17	1,603.31	1,612.62	1,635.12	1,637.62
금 융	2,045.59	1,859.32	1,709.64	1,921.16	1,933.40
제조업	1,724.07	1,857.12	2,245.13	2,040.56	2,044.44
광 업	1,695.32	1,698.47	1,699.32	1,758.74	2,115.78
어 업	0.55	0.55	0.55	0.55	0.55
석유업	157.93	207.93	207.93	176.22	176.22
서비스	185.61	231.95	249.07	255.86	265.38
문 화	1.24	1.24	1.24	1.24	1.24
교 통	105.77	198.46	311.89	313.45	313.45
관 광	58.37	58.37	62.10	62.10	62.10
기 타	15.04	14.30	14.70	15.81	16.11
TOTAL	12,945.45	13,388.65	13,788.34	13,891.87	14,278.06

자료원 : Proinversion

다. 대 페루 투자 상위 6 개국 투자동향

페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위 6 개국의 분야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통신업과 금융업에 투자가 50% 몰렸을 정도로 페루에는 외국계 통신회사나 외국계 은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통신회사로는 스페인의 Telefonica, 멕시코의 Claro, 미국의 Nextel 등이 대표적이며 은행으로는 스페인의 BBVA 등이 있다.

상위 6 개국의 분야별 투자동향



자료원 : Proinversion

페루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광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가 산업의 중심지이자 수도인 리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몇 년간 투자액 지속적으로 증가

페루의 경제부 투자국(Proinvers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페루 투자진출 현황은 2005년 12월까지 약 4천 4백만불 정도로 1995년 이후부터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장 투자액이 큰 분야는 운송업 분야로 전체 투자액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액	20.69	28.22	39.29	39.44	44.82

자료원: Proinversion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송업, 금융업 및 무역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무 역	금 융	산 업	광 업	석 유	운 송	TOTAL
투자액	5.75	9.00	5.88	4.14	0.10	19.95	44.82

자료원: Proinversion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SK, 대우, LG 등 대기업과 석유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는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 등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트레이딩에 종사 하는 소규모 자영업 등이다.

페루 유전개발에 SK, 대우, 석유공사가 아마존 지역 8 광구에 투자하였고 SK 는 Camisea 가스전에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와 LS-Nikko 가 각각 Marcona 동광에 지분을 15%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는 해안선이 길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몇몇이 페루 북부의 Tumbes 지역 등에 투자하여 활동 중이다.

페루에서는 택시의 절반 가까이가 대우의 티코 일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페루에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수가 적지 않게 많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섬유, 전자제품, 보안장비, 중장비, 무역,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가 투자한 상황이다.

페루 경제부 투자국(Proinversion)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페루에 투자한 100 대 기업 중 SK 가 18.75 백만불로 29 위에 랭크 되어 있으며 LG 전자가 5.38 백만불로 51 위에 포진되어 있다. SK 는 페루 최대 가스유전인 Camisea 에 투자 진출한 상황이며 LG 전자는 페루 가전제품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다.

나. 투자 성공 사례

SK 는 아르헨티나 플루스페트를 등 5 개 외국 기업과 함께 2000 년 카미시아 88 광구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업 생산은 2004 년 시작했다.

석유와 가스를 함께 생산하는 카미시아 88 광구는 남미 최대의 가스전이다. 확인된 매장량이 원유 6 억 배럴, 천연가스 8 조 7000 억 세제곱피트에 이른다. 가스를 원유로 환산하면 약 14 억 5000 만 배럴로 합치면 20 억 5000 만 배럴에 이른다. 20 억 5000 만 배럴은 한국이 2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다.

88 광구 공동 사업자인 SK(주)의 지분은 17.6%, 100 달러어치의 기름과 가스를 파면 17 달러어치가 SK(주)몫이라는 얘기다. 페루 카미시아 사업으로 SK(주)가 지난해 거둔 실적은 매출액 1 억 4000 만 달러, 순이익은 5000 만 달러에 이른다. SK 그룹 해외석유 개발사업 매출의 절반이 이 광구에서 나올 만큼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SK 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번째 페루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계획하고 있다. 88 광구와 인근 56 광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정제해 수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헌트오일, 스페인의 램솔-YPF 와 손잡고 약 10 억 달러를 투자해 페루 리마의 남부해안에 있는 팜파멜초리타 지역에 대규모 LNG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이 완공돼 LNG 생산이 가능한 2009 년 하반기부터 연간 420 만 톤의 LNG 를 미국 서부지역과 멕시코에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SK(주)의 지분은 30%이다.

세계적으로 가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SK(주) LNG 프로젝트는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전망이 밝다.

(자료원: 동아일보 2006.3.31)

33.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페루는 지난 '90 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후, 전 정권이 유지해온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경제의 국가통제 등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청산하고 자국시장의 대외개방, 공공부문의 민간 이양 등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 중남미 국가들 중 법적, 제도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은 폴레도 정부에서도 유지되었다.

페루의 투자관련 법적 기본골격은 크게 내국인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진흥법(Law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과 외국기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진흥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으로 되어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2)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o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민간기업 투자진흥법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규제 최소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와 간소화된 행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진흥법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페루 투자환경의 장점으로는 개방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을 들 수 있으며 통신, 전력, 도로, 광업, 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한 전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투자이윤 및 자본금 등의 송금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구리, 철, 아연, 금, 은, 원면, 어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생산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2006 년 중 체결예정인 페루-미 FTA 로 관세상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유망하다는 점도 투자의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다.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이 기본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는 내. 외국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아직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이 있어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페루는 인구 2,700 만명 정도로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권이 수도인 리마(인구: 약 8 백 5 십만 추정)에 집중되어 있고, 빈부격차 극심으로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고가상품의 시장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전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 1 기 시대인 '92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페루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05 년도 말 기준 14,278 백만불의 투자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시대별 대 페루 외국인 투자 집중 산업부문은 다음과 같다.

- 1987-92 : 광업
- 1993-05 : 통신, 제조업, 금융업, 광업, 에너지, 무역업

2005 년까지의 투자 유치액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은 분야가 통신분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산업, 금융업 또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2001 년 이후 급격히 투자 증가 현상을 보이는 분야는 금융업, 광업과 운송업 분야인데 특히 운송업의 경우 Protransporte 프로젝트를 통하여 리마 시내 도로망 정비와 천연가스 버스 수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동분야 투자액은 급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농산물 가공, 관광, 농업(원면, 커피 및 카카오 생산) 등 분야에도 투자 유치가 유망 시 되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노동여건이 열악하고 정부관료들의 비능률과 부패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심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애를 먹고 있다.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참고로 '91. 11. 13 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 호로, 내. 외국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 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서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시키는 경우는 국경 50 킬로미터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나. 투자허가

□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법령

1) 외국인투자촉진법

(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2)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on Privada ;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3) 민간투자보장제도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os Regimenes de Garantia a la Inversion Privada ; Decreto Supremo No 162-92-EF, 1992. 10. 9)

상기법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내외국인 투자 동등 대우
- 외국인 재산권 보장
- 투자 자본 원리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보장
- 이외, 제 3 국 수출기업 유치를 위해 제정된 산업 및 관광자유지역, 상업화 특구, 지역 개발특구 설치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15 년간 페루의 각종 세금 면제 혜택 부여 제도가 있으며 근거법은 Decreto Legislativo No. 842 ('96.8.30) / 865('96.1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업체가 페루 외국인 투자위원회(CONITE)와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 년간 조세안정화법에 의거 소득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협정체결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 투자자본이 200 만불 이상일 경우
- 투자자본이 50 만불 이상으로 20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가져오거나, 협정체결 후 2 년 동안 최소한 200 만불 이상 수출을 할 경우
- 페루는 현재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보장기구인 MIGA 에 가입하고 있다.

34. 투자 인센티브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이 기본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의 경우 내. 외국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2006년 7월 알란 가르시아 신정부가 들어서자 최근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인 광산업체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들과 협상 중에 있다.

35. 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란 기획 중이거나 제안된 투자 프로젝트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상업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페루에 투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조사에는 시장조사, 기술조사, 자금계획, 사회분석 (사회체제, 환경 등), 경제성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랜트의 경우 원료 및 제품의 시장조사, 이용 가능한 기술과 프로세스의 비교, 예비적인 비용추산, 최적 경제규모, 입지조건과 입지선정, 마스터플랜 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페루의 조세제도, 노동시장, 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적합지인지 여부를 연구해야 하는데 최근 페루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광산업 투자가 활발하며 섬유, 자동차부품, 무역업 등에 소규모 자본들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36. 투자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진출은 현지법인, 지사 및 지점 등으로 구분 되는데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법인명

현지법인 설립 시 여하한 명칭으로든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란 뜻의 SOCIEDAD ANONIMA(약칭 S.A.)을 포함해야 함.

2) 자본금

자본금은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등록된 STOCK을 의미하며, 최소 자본금은 강제되지 않음.

3) 주주

주주는 최소한 3명 이상의 개인이나 또는 법인,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성되어야만 함.

4) 법인

DIRECT CREATION과 PUBLIC SUBSCRIPTION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두 가지 형태 모두 법인 설립의 발기인인 주주들이 공증인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주주 전원의 신분증 및 페루 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 등등)를 제공해야 한다.

DIRECT CREATION에 의한 법인 설립을 예로 들면, 투자 자본액을 페루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일단 자본금이 예치되고 나면 주주들은 법인 설립서를 작성하고 동 법인 설립서에 변호사의 법률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 설립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공증인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의 상업 등기소에 법인 설립의 등록을 위한 공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5) 설립 비용

법인 설립과 관련된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총 투자 자본액 및 공증 서류의 복잡성, 길이 등에 따라 산출되는 공증 비용
- 자본금의 3/1000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비용
- 대표이사 등록비와 변호사 비용 등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

6) 법인 유효 기간

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한 법인 유효 기간은 무한하다.

7) 회계상 필요조건

법인은 영업 행위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주 장부인 회계장부를 스페인어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특별히 외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화 기준으로 가장 정리하여야 한다.

과세 부과 기준은 외화로 정해 질 수도 있지만 해당 세금을 납부 할 때에는 당시 환율로 현지화로 환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주요 회계장부로는 STOCK BOOK, TRIAL-BALANCE BOOK, DAY-BOOK, LEDGER, WAGES & SALARIES PAYROLL BOOK, MINUTE BOOK 등이고 이상의 회계장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 확인이 요구된다. 특히 종업원 급여에 관한 장부인 PAYROLL BOOK의 경우는 페루 정부 노동부에 의해 검증 되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페루 내 지사 설립의 경우 자유로운 편이지만 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에는 페루 내의 주소, 지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지사의 법적 대리인 지명, 지사의 영업 형태 등이 필히 기재 되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동 회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로 주재 페루 영사에 의해 확인된 증명서, 기타 국가에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및 페루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모 회사측의 결정문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투자 진출을 위한 수속 절차

1) 납세번호(RUC) 등록카드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서류: 정관, 자본납입증명서 등
- 페루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2)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 투자 등록

회사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관리청 Proinver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형태에 의한 것이든 페루업체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Proinversion에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UNIFIED REGISTRY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부문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항목이 모두 기재된 UNIFIED REGISTER 양식 (동 양식은 BANCO DE LA NACION 은행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등기소의 확인을 받은 법인등기서 사본
- 종업원 급여대장

4) 주소지 소재 시. 구청의 영업허가서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 페루투자관리청 Proinversion

- 주 소 : Paseo de la Republica 3361, Piso 9, LIMA, PERU
- 전 화 : (51-1) 612-1200
- 팩 스 : (51-1) 221-2941

라. 투자방식

페루에서 외국 회사 투자 방식은 단독이거나 합작이거나 우선 Proinversion 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준비

외국인이 현지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할 경우나 외국인 2인 이상이 투자할 경우 외국인은 반드시 각각 25,000불씩 은행 예치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현지인은 예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은 반드시 공동 분배해야 하는데 외국인 99%, 현지인 1%로도 분배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현지인이 1%이지만 주식보유 권리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증

법인 서류, 설립 계약서, 자본금 입금 증명서, 여권 혹은 영주권 등 관련 서류를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 받아야 한다.

3) 납세번호(RUC) 등록카드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서류 : 정관, 자본납입증명서 등
- 페루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4)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투자 등록

회사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 관리청 Proinversion에 등록하여야 한다.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형태에 의한 것인 페루업체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CONITE에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UNIFIED REGISTRY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든 모든 경제부문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하여야만 한다.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항목이 모두 기재된 UNIFIED REGISTER 양식(동 양식은 BANCO DE LA NACION 은행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등기소의 확인을 받은 법인등기서 사본
- 종업원 급여대장

6) 주소지 소재 시. 구청의 영업허가서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참고: 통상적으로 페루의 경우 관공서 업무가 매우 느리고 불합리한 처리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 진행을 해야만 한다.

투자절차

법인설립 관련 제출서류 → 변호사 공증 → 등기소 등록(SUNARP) → 국세청 (납세번호인 RUC 발급) → 시. 구청의 영업 허가서 → 페루 투자 관리청(Proinversion)에 외국인 투자 등록

37. 입지선정

페루에는 특별히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유무역지대인 SETICOS 지역에 일부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나 주로 수입 중고자동차의 수리, 변형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종이 대부분이며,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을 뿐 우리 개념의 산업단지는 전무하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고용창출과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향후 산업공단이 조성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38. 공장설립

페루는 외국인이 공장 설립을 희망할 경우 우선 회사 설립 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공장설립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공장만 설립 할 경우 시간과 경비가 대거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선 회사 설립이 되어 있을 경우 공장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신청 기업은 공장 설립 시 공장입지 예정지를 선정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허가제도 같이 지불하여야 한다. 허가제는 각 해당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해당 구청은 이 서류들을 토대로 공장입지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공장 건축을 허가한다.
- 공장설립 승인서가 발급되면 신청 기업은 건축 착공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여부를 해당 구청에 등록한다.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설립인 인감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 신청서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증명서, 선적 전 검사증명서,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안데안 회원국 및 LAIA 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제 서류 기재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류), 세금납부 영수증, 품질증명서(의약품 등의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등이 통관 시 필요 서류이다.

위와 같은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 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일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하여 전산 처리반에 전달하며, 전산 처리반에서는 동 자료를 전산입력,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여부를 점검하며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재 접수 시키도록 조치한다.

적격 서류만을 대상으로 처리순서인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 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하게 된다.

- 참고1 : 수입검사 제외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2 : 수입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세관

- 1일 접수 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출력하고 이에 검사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물품창고에서 실물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여부 및 관세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확인서와 실제물품을 비교하여 관세산정 적합여부를 검사하며 검사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번 별 세관자체보유 관세평가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세관통관에 총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세관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 - 12:30, 14:00 - 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권자는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 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97년 기준 1UIT=S/3,000 (US\$ 862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 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004년 8월 1일부터 선적 전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페루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하여 통관을 위해서는 간혹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40.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는 Cuzco 공항이 있다. 이중 Tacna 공항은 인근 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Jorge Chavez 국제공항의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단과의 양허 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간의 양허 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내부 보수공사 등이 완성되어 현재 남미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루의 국제항구로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고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Callao 항구가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이며 그 이외에 남쪽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과 북쪽으로는 Paíta, Chimbote 항이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41. 노무관리

가. 고용

페루에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나 광고, 전문인력 공급기관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현지 노동법규에 맞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실업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내게 되면 많은 지원자가 몰려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인력

높은 실업율로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를 구하기는 용이하나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력이 서비스업에 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임금

단순 노동자의 임금은 200-300불 정도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전문 직종의 급여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0-5,000불 정도로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졸 초임 사무직 임금은 평균 6-800불 정도이나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다. 최저임금은 S./500(약 150불) 정도 수준이나 가이드 라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45% 상당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 최근 노동시장 현황

일반적으로 페루 노동자는 생산성에 비하여 급여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속한다.

이는 20인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약 85% 이상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어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기업측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고임금구조하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구조로 인하여 노동 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은 핵심부서와 관리자급에서만 정규직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총원되고 있어 높은 실업률 못지않게 임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년대 노조측에서는 기업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자주 Strike를 일으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켰지만 최근 들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 시장조건이 악화되자 Strike를 일으키는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 단체교섭 및 중재

기업측에서는 노조 또는 노동자 50%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금, 노동자 근로조건 등을 협상해야 하며 최저 임금('05년 12월 29일: 500.00Soles)이하에 대한 노동조건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단체교섭은 통상 1년이 적용되나 상호간 협의에 의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측과 노동자 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5일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중재에 의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Strike를 할 수 있는데 사기업인 경우 최소 5일전에 사용자 및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 기관은 10일 전에 Strike를 통보해야 된다. 통보를 받은 정부에서는 3일 이내 Strike가 합법과 불법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불법 Strike인 경우는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 측은 Lockout(직장 폐쇄)로 노동자와 맞설 수 없으며 이 경우 Lockout는 불법이다.

노조는 정부로부터 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Strike의 경우 노조원 1/5의 서명을 다시 받아 불비한 요건을 갖춘 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Strike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노동자는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의료와 관련된 응급실, 전기, 용수, 석유, 교도소, 통신, 사법행정, 방송, 쓰레기 수거 및 공공과 관련된 기타 분야

바. 대표적인 노동조합

- 페루 노동자 연합
 - 좌익의 대중혁명연합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섬유노조와 운송조합 노조가 있음

- 페루 노동자 총 연합(CGTP)
 - 광산주의 계열로 광산 및 철강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건설 노조 및 금융 노조 등과 연합하고 있음
- 페루 교육자 연합
 - 교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광산주의 계열임
- 공기업 근로자 연맹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회적 파장 효과가 가장 심각함
- 국가 노동자 연합
 - 아무런 정치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각 기업 단위 소규모 노동 조합의 연합체임

사. 근로일수(시간) 및 휴가

노동법 67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매월 고정된 급여를 제공해야 되며 1개월의 기준일자는 30일이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Strike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만 개인병가, 회사에 의한 교육, 자녀 생일을 전후한 time-off, 노동조합장에 의한 합법적인 time-off, 회사측에 의한 time-off는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휴가는 30일 이상은 보장해야 되며 노동자가 휴가를 가지 못하였을 경우 자발여부를 막론하고 기업가 측은 보상해야 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휴가 보상금은 휴가 1일당 3배의 일반 영업일 임금이다. 다만, 휴가 30일중 15일은 사용자측이 노동자와 협의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노동법 854조에서는 주간 노동일수를 48시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정규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아. 급여 이외의 근로자 복지 및 수당

사용자측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의 연간 급여 총액 중 9%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공제하여 Social Security에 적립하고 총액의 2%는 Solidarity tax에 적립해야 된다. 연간 총액 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너스, 각종 수당, 급식보조비 등 모두를 포함하며 연말 인센티브 개념인 Profit sharing는 제외한다.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의료연금은 2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연간 급여총액의 10%를 공제하여 국가 의료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급여총액의 8%를 사설 의료연금에 가입하고 4%는 국민연금관리 공단(Primas de Seguro)에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사용자측은 4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4년 급여 총액의 최소 1/4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life insurance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18세 이하의 노동자는 야간작업이 불법이고 12-14세 노동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33시간이며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근무는 일일 7시간까지 최대이며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어

설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없어지며 새롭게 근로한 1일로 간주한다. 초과근무 수당은 평상시 근로 임금의 125-150% 수준에서 지급하지만 양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초과근무 수당으로 첫 2시간은 25%, 그 이후부터는 35%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페루 노동법에서는 최소 보너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7월 및 12월에 최소한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된다(연간 최소 200%의 보너스 지급 의무화)

자. 해고 및 구조조정

노동자의 생산성이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지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가 비행, 절도, 사기, 약물남용, 폭력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시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며 해고 예정인 노동자에게 통보가 곤란할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 6영업일 이전에는 무조건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급속한 기술 개발 및 발전에 의해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는 노동자 해고 (구조 조정)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해고 여부를 문의해야 되며 노동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 의견을 노동자가 거부하여 재 접수하였을 경우 노동부는 다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결정하고 동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2. 조세제도

가. 영업세

페루의 영업세는 부가가치세(IGV: 또는 일반 판매세)로서 페루 내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 건축계약, 건설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동 부가가치 세율은 원래 17%이며, 이외에 도시 진흥세 2%가 더해져 총 19%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및 수입 시 또는 건축계약서에 근거하여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총 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소득세

페루의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의 국적 또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페루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동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체의 경우 제 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 사업 연도 말 현재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특히 '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분배에 따라 발생한 여하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1) 거주 납세자

- 사업체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 개인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 규모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 총 소득수준이 54 UIT미만: 15%
 - 54 UIT 이상: 30%

* UIT는 조세 단위로 1 UIT는 2006년 기준 3,400솔(S/.) = US\$ 1,030 수준임

2) 비 거주 납세자

-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 로열티: 10%
 - 자동차 및 항공기 리스 (LEASE)로 발생하는 소득: 10%(자동차의 경우 순소득 80%, 항공기의 경우 순소득 60% 이상에 대해)
 - 페루 내에 설립된 은행 및 금융회사가 해외에 지불한 이자 중 외국금융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이자소득: 1%
 - 기타 소득: 10%
-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개인은 페루 내에서 행한 개인적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급료, 보상, 로열티 및 기타소득: 30%

3) 2001년도부터 재 투자분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음.

4) 참고 사항

페루 정부는 2002년도부터 중간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를 27 UIT미만, 27 UIT-54 UIT 미만, 54 UIT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5%, 21%, 27%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법인 소득세 중 재 투자분에 대해서도 과도정부가 20%의 특혜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27%로 상향 조정 부과할 계획이다.

다. 순자산 특별세

페루 국내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시키든 않든 간에 순자산의 0.5%(종전의 2% -> 1.5%에서 재차 하향 조정 됨)에 해당하는 순 자산 특별세(종전의 최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97년 5월 4일부로 발효된 법률 제26777호에 따르면,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가 신설된 반면에 최저 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91년 12월 28일 제정된 페루의 최저소득세에 관한 법률 제25381호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적자를 기록한 법인체만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를 최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최저 소득세제는 소득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소유 권을 위배하는 제도로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모든 법인체를 대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자 대차대조표에 따라 순자산에 대해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저소득세를 대체한 신규 특별세는 외국의 투자진출업체, 외국기업의 지사 및 기타 페루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동 신규 특별세가 외국기업이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상계 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18일에는 동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26777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페루 내에 설립된 법인체는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분할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1998년도의 경우 5월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선납부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액을 상계할 것이며 6월부터는 신 특별법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이미 납부된 소득세가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에 대해 상계될 것이며, 페루 내에서 납부된 모든 소득세가 투자자의 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에 대해 상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의 업체들은 순자산 소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체 설립 후 1 회계연도 이내의 생산업체
 - 청산중인 업체
 - 1998년 12월 12일 이전에 자본확대를 시도하는 숙박업체
 - 공업 식 농장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업체, 목축업체 및 임업업체
 -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합병에 의해 흡수된 업체

43. 외환관리

페루의 외환관리기관은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으로서 환율제도는 원칙적으로 외화의 수급에 의한 자유외환시장 환율결정 기능을 골자로 하고 환율의 과다한 등락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DIRTY FLOATING STSTEM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환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경향이다.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여, 국내 거주 내. 외국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외화예금 구좌개설 허용, 내국인의 외화송금 및 해외반출의 용도제한 및 금액한도의 폐지, 외화송금 업무의 중앙은행허가제에서 일반 외환업무 취급은행으로의 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의 100% 허용 등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외환 자유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치 보존수단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자국화폐의 기능상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주식 소유자 및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시장환율에 의해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10%의 주식배당세가 부과된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 위원회(CONITE)에 등록된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되며, 로열티 지불액에 대해서는 28%의 로열티세가 원천 징수된다.

외국으로부터 차관도입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입차관의 원리금상환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중환율로 이루어 진다. 투자원금의 본국회수시도 CONITE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투자인 경우 투자원금의 본국회수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되고 있다.

페루의 외환시장은 마약 원료인 코카인 거래대금, 외국인 투자자금 및 페루의 금리변동에 따른 단기성 유입 달러, 휴가 시즌 등 외환 급증시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인근 남미국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외환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타국은 환율 상승세에 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페루는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페루에서는 외국인 등록, 은행구좌개설, 보험부보 등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정해져야 하며, 각종 서류 제출시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집을 구하는 것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매일 기재되는 임대 광고란을 보거나 전문부동산 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통상 1-2개월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동 보증금은 계약파기, 집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의 하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 주어야 할 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집기나 주택 상태의 훼손(못 구멍, 벽의 흠집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비조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마에서 이용 가능한 아파트의 월세 수준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나 20-3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250-300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주거 선호지역의 \$2,500-3,500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 약 \$2,000-3,000 수준이면 비교적 중급, 안전 지역의 집을 임차할 수 있다.

나. 교육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녀를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고 있으나 교육비는 매우 비싼 편으로 가장 지명도가 높은 루즈벨트 학교의 경우 학기당 4,500불 수준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 학교는 교육비 부담은 적으나 스페인어로 교육하고 교육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선호하는 한국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자녀교육관련 선택 폭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현지 외국인 학교로는 ROOSEVELT 학교를 들 수 있다.

- 학교명 : Colegio Franklin Delano Roosevelt
- 주소 : Av. Las Palmeras 325, Camacho, La Molina, Lima 12, Peru
- 전화 : (51-1)435-0890
- 팩스 : (51-1)436-0927
- 이메일 : fdr@amersol.edu.pe
- 웹사이트 : www.amersol.edu.pe
- 학비수준 : \$5,000/6개월
- 기타경비 : 입학금 \$6,000/1인당, 실험실습비 \$100/6개월, 과외활동비 \$50/6개월, 통학버스비 \$375/6개월, 보험료(의료, 안전보험) 별도

이 외에도 외국인 학교로는 영국계, 프랑스계, 독일계 등 학교가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사용 언어에 다소 차이가 있어 한국인 자녀교육에는 적합한 편이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한인 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한인회를 중심으로 교민 2세를 위한 한글학교가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다.

다. 전화신청

전화신청은 주거지역이 결정된 후 주고 소재지역 관할 전화회사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 하는데 이 때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수도료, 전기료)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회선을 가설해 주고 있다.

신청료는 1회선당 79불이며 전화기를 포함 시는 99불이며, 최근 들어 페루는 전화회사의 민영화로 회선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화요금은 인근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라. 구좌개설

구좌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설이 까다로운 편이며, 구좌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은행 구좌개설 신청서, 현지 거주사실(공과금 영수증 : 전화세,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증빙서, 최소 \$500의 예치금(구좌개설 후 인출할 수 있음)이 필요하다.

마. 병원

일반적으로 병원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RICARDO PALMA, JAVIER PRADO, SAN BORJA, SAN PABLO, ANGLO AMERICANA, GOLF 등 일부 현대화된 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고액의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병원에 따라 다르나 단순진료의 경우 1회 최소 50-70불 내외가 소요된다.

현지 병원은 우리나라의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클리닉(CLINICA)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진료에서 처방약품 구입에 이르기 까지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 가구류 구입

페루는 모든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삿짐을 부칠 때 필요한 물품은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품질 수준을 요하는 제품은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4개의 백화점이 함께 모여있는 쇼핑몰인 JOKEY PLAZA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자제품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인 CURACAO, CARSA등을 이용하는 것이 제품의 선택 폭이나 가격면에서 유리하며, 수입가구류를 제외한 일반가구류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메이커의 매장이나 직접 메이커를 접촉하여 구입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사. 현지 생활여건

후진국 특성상,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것을 감안할 경우, 물가가 비싼 편이지만 식품 조달 등 한국인 생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원주민과 혼혈인 비중이 높은 관계로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기후는 주택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특히 매연이 심하고 주변 환경이 사막기후로 전반적으로 삭막하고 연중 대부분 햇빛을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다르나, 주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은 해안 쪽의 상업중심지 SAN ISIDRO, MIRAFLORES등의 아파트 촌과 내륙 쪽으로 LA MOLINA, SURCO등지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해안지역의 아파트는 상업중심지에 소재 각종 편의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보유한 반면, 습도가 높고 특히 겨울철(5월- 9월)에는 햇빛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내륙 쪽에 위치한 주택가에는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많은 장점이 있다.

많은 중국계, 일본계 교민이 생활하는 관계로 일반 야채, 과일, 생선 등이 풍부한 편이다. 최근 한국 슈퍼 마켓 오픈으로 각종 한국산 식품(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 구매가 매우 용이해 졌다. 대형 슈퍼마켓인 E.WONG, SANTA ISABEL 등에서는 라면, 사발면, 새우깡 등이 판매되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발달되어 있어 생필품 구입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과일, 생선 등 현지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지 않는 식품재료등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 가공된 상품들은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어 한국보다도 가격이 비싼 실정이다.

가정용품의 경우 현지 백화점, CASAS & COSAS매장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거의 100% 수입품인 관계로 가격은 비싼 수준이며 각 구소재지 마다 중앙상가(CENTRO COMERCIAL) 또는 E.WONG 슈퍼마켓이 있어 생필품구입에 큰 어려움은 없다.

아. 치안

아직 전반적인 치안상태가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기업체 및 주택가에서는 사설 경비회사와 계약을 체결, 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테러 및 범죄집단의 활동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 동안에는 이동 및 업무수행에 큰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지역적으로 리마 시내 구 중심가는 밀수품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신변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줌도둑, 강도 등의 표적이 되기 쉬워 방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직은 리마 도심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외곽에서는 강도 등 민생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 동안 진압상태였던 게릴라 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차량으로 수도권외로 이동 시는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인디오, 메스티조(혼혈)등이 전체 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으로 호감을 갖고 있으며 후지모리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왔으나, 지난해 후지모리 전대통령의 이례적인 외국(일본)에서의 사임파동 이후 전반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경멸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